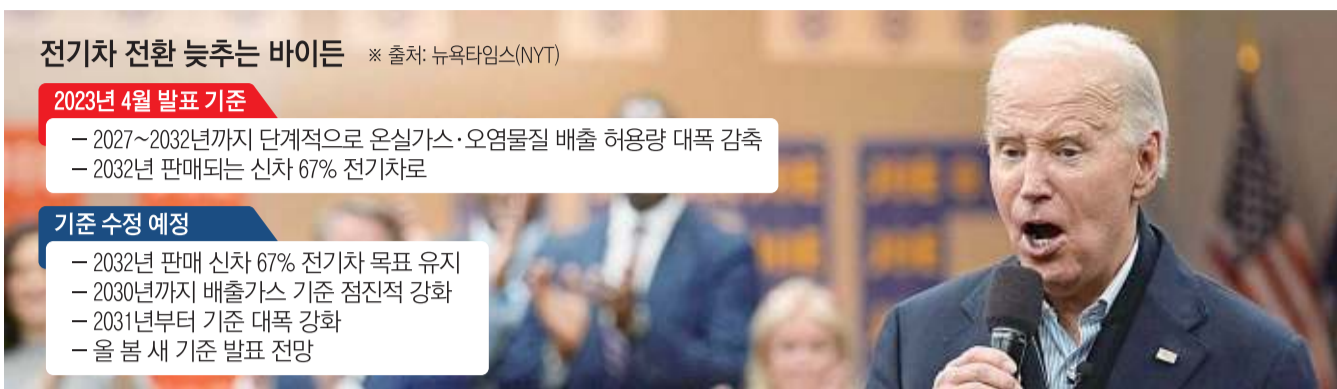


'대선 車票' 뺏길라... 바이든 '美 전기차 전환' 급제동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발표했지만 자동차 업계·노조 반발에 선회 "2030년까지 기준 점진적 상향" UAW, 정책 바뀌자 "재선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노조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애초 강도 높은 전기차 전환 계획을 마련했지만, 노조가 불만을 품자 전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4월 환경보호청(EPA)은 배기가스 배출과 관련해 역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을 자동차 업계에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업계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여 2032년 전기차의 신차 비중을 67%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렌에 있는 전미자동차노조(UAW)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워렌(미국)/AP뉴시스

올려야 한다.

그러나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2032년 신차 비중 목표는 유지하되, 배출 감소 속도는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는 점진적인 속도의 감축을 허용해 업계에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이후부터 2032년까지 배기가스의 가파른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확정된 계획은 올봄 발표될 예정이다.

그간 전기차 전환을 강조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변화를 꾀한 데는 대선

이라는 변수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자신을 '친노조' 대통령이라 칭하면서 노조와의 거리를 좁히려 애썼다. 지난해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노조가 파업했을 때 그는 직접 파업 현장을 찾아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올해 들어서는 자동차 노조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담은 '바이드노믹스'를 홍보하는 데도 열을 올렸다.

일련의 노력에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계획을 두고 불멘소

리가 나왔다.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게 지적 사항이었다. 지난해 미국에서 120만대의 전기차가 팔렸지만,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선 남은 8년간 판매량을 기존의 약 10배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이 성장 둔화라는 장애물에 부딪힌 상황에서 업계는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 파업의 원인적이었던 임금 인상 역시 결국은 전기차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을 놓고 벌어진 기업과 노조 간 갈등이 근본적인 배경이 됐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파업당시 손패인 전미자동차노조(UAW) 회장은 "노조는 전기차 전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에 대한 지지를 보류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UAW는 지난달 돌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EPA가 백악관에 수정된 전기차 전환 계획을 보고한 이후 결정된 것이라고 NYT는 짚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면 업계는 한결 여유롭게 전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동차 연구센터의 벤카테시 프라사드 수석 부사장은 "많은 중산층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며 "2030년 이후에는 업계가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전기차 전환 늦추는 바이든 ※ 출처: 뉴욕타임스(NYT)

2023년 4월 발표 기준

- 2027~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 허용량 대폭 감축
- 2032년 판매되는 신차 67% 전기차로

기준 수정 예정

- 2032년 판매 신차 67% 전기차 목표 유지
- 2030년까지 배출가스 기준 점진적 강화
- 2031년부터 기준 대폭 강화
- 올봄 새 기준 발표 전망

현대차그룹, 2년 연속 글로벌 완성차 '빅3' 수성

지난해 전 세계에서 730만대 판매 도요타·폭스바겐 이어 부동의 3위 4위 르노 판매량 90.5만대 격차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2년 연속 글로벌 완성차 3위 자리를 지켰다. 4위인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와의 판매량 차이를 늘리며 '빅3' 위치를 공고히 했다.

18일 각 완성차그룹의 실적발표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730만4000대를 판매했다. 도요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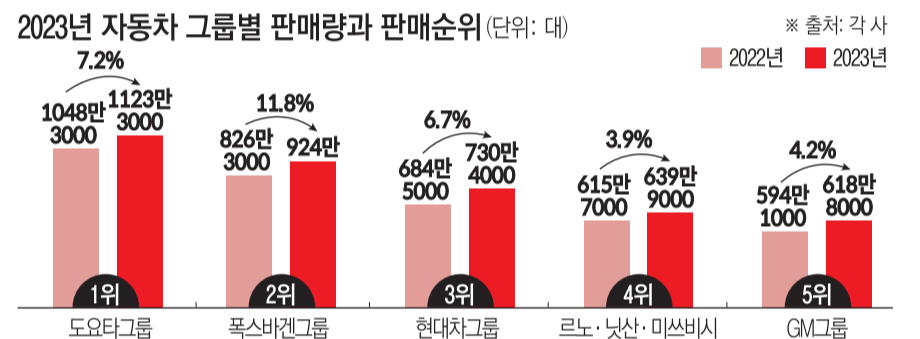
그룹(1123만3000대), 폭스바겐그룹(924만 대)에 이어 글로벌 판매량 3위다. 현대차그룹의 3위 수성은 15일(현지시간) 스텔란티스가 연간 50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6개 자동차그룹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확정됐다. 2022년 처음으로 빅3에 오른 이후 2년 연속 같은 순위를 지킨 것이다.

현대차그룹다음으로는 프랑스 르노와 일본 닛산, 미쓰비시가 결합한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639만9000대), 미국 GM그룹(618만8000대),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푸조·시트로엥그룹이 합병한 스텔란티스그룹(617만5000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4위를 차지한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와의 판매량 차이를 68만8000대에서 90만5000대로 벌리며 3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도요타-폭스바겐-현대차그룹으로 이어지는 빅3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6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4위인 르노-닛산-미쓰비시 그룹과 5위 GM그룹과의 판매량 차이는 21만6000대에 불과하다. 5위 GM그룹과 6위 스텔란티스의 차이도 1만3000대 밖에 나지 않는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 처음 글로벌 완



성차 판매 10위권에 진입했다. 2010년에는 미국 포드를 제치고 처음으로 5위에 올랐다. 이후 10년간 5위에 머물렀던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020년 4위로 도약했다. 이듬해인 2021년 다시 5위로 떨어졌으나 1년 만에 두계단 뛰어오르며 처음으로 3위에 올라섰다. 지난해에도 2년 연속 같은 순위를 지

키며 빅3에 안착한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현대차 424만대, 기아 320만대 등 총 744만대의 글로벌 합산 판매 목표를 설정했다.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성장률은 4.0~5.0%, 영업이익률은 8.0~9.0%를 목표로 제시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패션·뷰티·헬스
한섬
현대바이오랜드

종합식품
현대그린푸드

토탈리빙·인테리어
현대리바트
현대 L&C
지누스

유통
현대백화점·아울렛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면세점

차량·건설장비
대원강업
현대에버다임

여행·복지·디지털·IT
현대드림투어
현대이지웰
현대퓨처넷
현대IT&E

현대백화점그룹은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5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다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리빙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다한섬닷컴 | 현대리바트 | 지누스 | 현대이지웰 | 현대드림투어 | 현대리빙이미솔루션

현대백화점그룹 |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다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리빙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다한섬닷컴 | 현대리바트 | 지누스 | 현대이지웰 | 현대드림투어 | 현대리빙이미솔루션

HYUNDAI
현대백화점그룹

편의점 도착화 35년... 이젠 한류 수출 '전초 기지'



1991년 서울의 한 세븐일레븐 점포 밖 모습.

연합뉴스

과거 한국은 글로벌 편의점 업체가 진출하는 이른바 '편의점 수입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편의점 점포를 글로벌 신흥 시장으로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국내에 맞는 한국형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갖춘 플랫폼을 개발한 덕이다.

18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편의점 시장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현재 위치에 이르기까지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다. 편의점이라는 유통채널이 국내 시장에선 매우 생소했기 때문이다.

국내 1호 편의점은 1989년 5월에 문을 연 세븐일레븐 올림픽선수촌점이다. 코리아세븐이 미국 제빙회사 사우스랜드와 기술 도입계약을 맺고 점포를 낸 것이 편의점 역사의 시작이다. 이후 코리아세븐은 1994년 롯데쇼핑에 인수, 롯데그룹에

편입됐다. 같은 해 태인유통(현 SPC그룹)이 미국 데어리마트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로손 매장을 냈으나 이후 코오롱그룹에 팔렸다가 롯데그룹이 인수, 세븐일레븐으로 간판을 바꿨다.

이어 1990년 보광그룹은(현 BGF리테일)은 일본 브랜드 '웨이리마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편의점 점포를 들고 들어왔다. 이후 2012년 일본과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 독자 브랜드 'CU'로 전환했다. '미니스톱'은 1990년 마윈(현 대상)이 일본의 이온그룹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2003년 대상이 지분을 일부 정리해 경영권을 이온그룹에 넘겼고, 2022년 코리아세븐이 미니스톱을 최종 인수해 세븐일레븐으로 일원화 작업 중이다. 이처럼 한국 편의점 브랜드는 외국에서 태동한 업체가 국내 기업과 손을 잡고 진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진격의 K-편의점

세븐일레븐·로손·웨이리마트 등 국내 경영권 넘기거나 상호 변경 첫 토종 브랜드는 1990년 LG25

CU·GS·세븐·이마트 4곳 경쟁 맥주 할인·간편 택배 등 '한국화'

그러다 국내 최초 토종 편의점 브랜드가 탄생하는데, LG그룹 계열 희성산업이 선보인 'LG25'가 그 주인공이다. 희성산업은 1990년 말 LG25 경희점을 오픈한 뒤 LG유통으로 상호를 바꿨고, LG25도 2005년 GS그룹이 LG그룹에서 분리되면서 'GS25'로 브랜드가 변경됐다. 이마트24는 편의점 시장에 가장 늦게 뛰어든 후발 주자다. 신세계그룹이 2014년 국내 브랜드 '위드미'를 인수하면서 편의점 시장에 진출했고 2017년 '이마트24'로 이



GS리테일이 2021년 베트남 호찌민시에 문을 연 현지 1호 가맹점 '마스터리'점. 사진제공 GS리테일

름을 바꿨다.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상품 경쟁력과 점포 플랫폼을 한국 소비 시장 특성에 맞췄기 때문이다. 1~2인 가구 증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간편식, 소포장 상품 구색을 대폭 확대했다. 수입맥주 '4캔에 1만 원'과 같은 가격 마케팅도 내놓으며 젊은 소비층을 적극 공략했다. 금융, 택배, 공연 예약 등 생활 편의서비스를 비롯해 안전상비약 판매,

자동심장충격기 구축 등 공공안전인프라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 편의점, 재고조회, 예약 등 IT 기술을 집약 중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 8조3981억 원이던 국내 편의점 시장 규모는 2015년 17조1947억 원으로 5년 새 2배 넘게 성장했고, 2020년에는 24조4795억 원을 찍었다. 업계는 지난해 편의점 시장 규모가 3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가장 한국적인 먹거리 발굴 현지화·파트너 관리도 중요”

해외 실무자가 꼽은 성공비결

CU(운영사 BGF리테일)와 GS25(GS리테일)는 해외 시장 진출에 의욕적인 국내 양대 편의점 브랜드다. 이들은 현재 각각 500여 개 점포를 아시아 지역에 출점한 상태다. 본지가 18일 두 편의점의 해외진출 사업 실무자를 만나 성공 요인을 물었는데, '현지화·K푸드·파트너 경쟁력' 등 세 가지를 공통분모로 꼽았다.

김태한 BGF리테일 해외사업운영팀장은 철저한 현지화를 성공 비결로 꼽았다. 그는 “현지 특성을 고려해 ‘한국 제품의 현지화’를 해낸 것이 CU 수출의 성공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CU는 K-편의점 해외 개척자다. 2018년 몽골, 2021년 말레이시아, 올해 상반기에는 카자흐스탄까지, 한국 편의점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첫 깃발’을 꽂아왔다. 특히 편의점의 해외 확장력은 즉석식품 코너 덕분에 가속도가 붙었다. 가성비·가심비로 유명한 K 푸드를 접하려면 편의점만한 데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현지화에 성공하면서 러브콜도 쇄도했다. 김 팀장은 “처음에는 우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MFC) 계약을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이제는 먼저 해보고 싶다는 현지 파트너사가 많다”고 했다. 김 팀장은 특히 MFC 파트너사의 역할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가 사업 확장의 포인트라고 했다. 첫 해외 파트너사인 몽골의 ‘센트럴 익스프레스’와 간편식 전문 제조공장을 지은 것이 대표적이다. 해외에 식품 제조 공장을 두고 현



김태한 BGF리테일 팀장 정희경 GS리테일 팀장

지 음식과 한국 즉석식품을 만드는 편의점은 BGF리테일이 유일하다.

정희경 GS리테일 해외사업팀장도 “가장 한국적인 것을 현지화해 파트너사에 전수한 것이 글로벌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미 K-편의점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각광받고 있다. 정 팀장은 국가경쟁력 성장과 편의점 점포 특성이 한몫을 한다고 했다. 그는 “K브랜드, K컬처 등이 세계적 히트를 치면서부터 해외 유통업체로부터 진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편의점은 ‘어디에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즉시 소비가 가능한 유통 채널이자 지역사회 공헌 기능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과 몽골에 진출한 GS25는 현지화 작업을 철저히 거쳐 한국의 성공 요인을 그대로 녹여냈다. 특히 몽골에선 길거리 음식이 흔치 않은데, 30대 이하 젊은 층의 인기로 힘입어 먹거리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파트너사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GS25도 MFC 형태로 해외에 출점했는데, 끈끈한 파트너십을 위해 ‘밀착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peter@·허정윤 기자 zelkova@

친환경 발전소를 세우다 에너지의 미래가 새롭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한국서부발전
LNG 발전소를 통한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건설합니다

1 김포 열병합 발전소	495MW	2023
2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	501MW	2025
3 여수 천연가스 발전소	500MW	2025
4 남양주 열병합 발전소	499MW	2027
5 공주 천연가스 발전소	500MW	2028
6 태안 #5-8 저단장 육내화		2024
7 이원호 수상태양광	43MW	2023.6
8 평택 만도태양광	3.5MW	2023.9
9 광주 광산 연료전지	8.4MW	2023.7
10 화성 남양#2 연료전지	19.8MW	2023.2
11 광주 초월 연료전지	9.6MW	2023.2
12 문경 #1 연료전지	15MW	2023.8
13 대구 마을형 연료전지	3MW	2023.11

KWP 한국서부발전
KOREA WESTERN POWER

“전공의, 환자 지켜달라… 현장이탈 땐 구제·선처 없을 것”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공의들이 실제 대규모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행동보다는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과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휴진할 경우, 국민들이 문을 여는 동네 의료기관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하기로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국민담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결정 유감”
비상·응급진료 체계 가동…환자생명 보호

복지부, 중상사고수습본부 열고 상황 점검
정부, 의료법 59조로 ‘업무개시 명령’ 가능
근무 관리·감독 만전… 어길 시 강력 조치

18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16일 진료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들 중 100명이 복귀했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복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면 추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앞서 16일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가 안 됐

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과 연가, 근무 이탈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상황 자료를 매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각 병원에 보낸 공문에는 “수련병원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수련 상황 감독을 위해 해당 병원은 2월 16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신규 계약 거부 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에도 ‘의사 집단행동 중상사고수습본부’ 제10차 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투쟁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요청했다.

의협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 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의사 부족한테 증원반대?… 내부서도 총파업 이전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려 집단행동의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들은 16일 진행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의에서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지지를 선언했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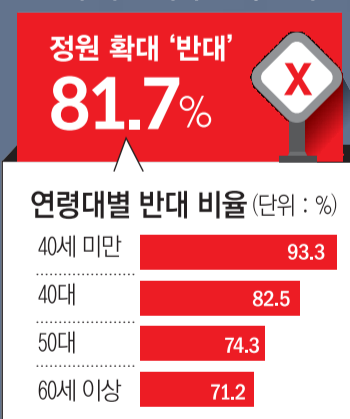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과거 사례를 보면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또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할지는 불투명하다. 각 병원이 전공의와 접촉해

의협 집단행동 갑론을박

각 병원 설득에 사직 철회도 전국으로 확산 여부 불투명
의료정책연구, 의사 설문조사 60세 이상 29% ‘증원 찬성’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업무 복귀를 설득하고 있고, 집단 사직이 철회되기도 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 47명 전원에게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복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전공의는 당직을 비롯해 환자 치료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이 병원을 비우면 입원과 수술 지연이 불가피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대 증원을 놓고 이견이 있다. 현재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젊은 전공의와 개원의 의사들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의사 4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 반대 비율은 40세 미만 젊은 의사들이 93.3%로 가장 높았다. 반면 50대는 74.3%, 60세 이상은 71.2%가 반대해, 10명 중 약 3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의협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해 진료를 보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 사실인데, 의료시스템이 문제라며 부족한 인력을 그대로 두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사 배출을 늘리고,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주 기자 hsj@

의대생 “내일부터 동맹휴학” 정부 “학칙상 승인불허 마땅”

전국 35개 대학 학생 휴학 결의
교육부 “휴학 요건 해당하지 않아 집단행동 학사관리 엄정대응해야”

전국의대생과 의과대학원생이 정부의 만류에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나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라 이 같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계 제출이 전공의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 밖을 나선던 때처럼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도 의대생 집단휴학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안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

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 단체 행동에 대응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에서도 상황대처반 등 대응 조직을 마련해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입대나 출산·육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칙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도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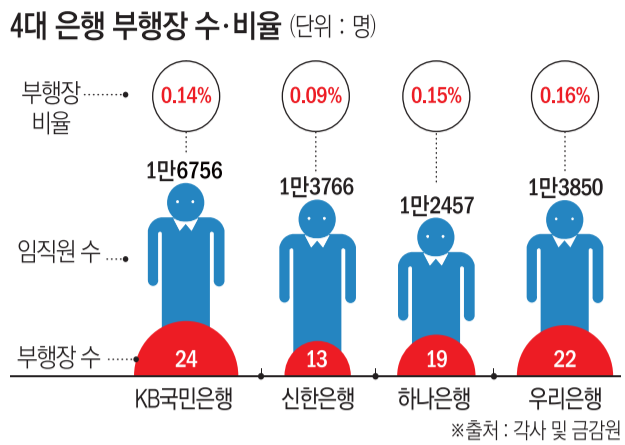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30년 외길' 속 1~2명만 부행장에... '뱅크 CEO의 길' 험난

① 4대 시중銀 부행장 보니

작년말 승진 36명 평균 56세
현장 경험 풍부한 영업통 약진
잇단 사고에 내부통제 강화도
차세대 경영진 육성 연수 이수
퇴임後엔 고문·자문 등 예우도



부행장 조건 및 혜택

근속연수	최소 30년 이상 근무
대우	수익원 연봉, 전용차량, 운전기사, 개인 사무실 제공
퇴임 후 대우	은행별 6개월~1년간 고문 지위 주고 현직 때와 비슷한 편의 제공, 일부 은행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무실·차량 제공



장 승진자 36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나이는 56세로 집계됐다. 1967년생과 1968년생이 각각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부행장 승진자 평균나이(54세) 보다는 다소 높아졌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평균 57세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이 55세로 가장 젊었다. 36명의 승진자 중 가장 젊은 임원은 1971년생이었다. 김영일 하나은행 경영기획그룹장,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 겸 투자상품본부장,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대표였다. 최고령자는 1966년생인 송용섭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과 장연수 국민은행 WM고객그룹 대표였다.

1990년 입행한 A 씨는 올해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영업부 대리부터 시작해서 서울과 경기권 지점을 돌며 경력을 쌓았다. 입행 16년 만에 부지점장을 달고 5년 후에는 지점장을 맡았다. 함께 입행했던 동기들은 퇴직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 떠났다. 조직개편과 인사 때마다 고비가 있었지만,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으로 그는 은행에서 뛰어난 '뱅크'로 인정받았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린 A 씨는 올해 입행 34년 만에 부행장에 올랐다.

◇30년 뱅크 외길... 어느덧 CEO 후보군으로= 18일 본지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부행장들의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최소 3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의 인사를 통해 다양한 영업점과 본점 등 다방면의 근무 경험을 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행 부행장은 은행원의 별로 여겨진다. 과거 직원 수백 명을 뽑았던 시기에 입

사한 행원 중 많아야 1~2명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다.

부행장이 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4~5년마다 부서를 옮기며 개인, 기업금융, 본부 업무 등을 하면서 네트워크와 대내외 금융전망에 대한 혜안을 쌓아야 한다.

대우도 파격적이다. 수익 원의 연봉에 전용차량, 운전기사, 개인 사무실 등이 제공되고 거액의 판공비까지 쓸 수 있다. 특히 최근 4대 금융지주가 부회장직을 폐지하면서 부행장이 은행장을 거쳐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으로 꼽힌다.

4대 금융지주 중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모두 부행장 출신이다. '관피아'가 사라지고 내부 출신이 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이 되는 관례가 정착되면서 부행장은 곧 차기 CEO 후보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행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시작됐다. 신한금융은 올해부터 차세대 경영진 육성을 위해 신한은행 본부장 3명에게 약 1년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인 '신한퓨처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1년간 인공지능(AI) 금융, 경영학 등 리더로서 갖춰야 할

교육을 국내외 대학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이수한다. 이들은 교육 이수 후 부행장급 임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4대 은행 부행장은 퇴임 뒤에도 예우를 받는다. 은행별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문 지위를 주고 현직 때와 비슷한 편의를 제공한다. 일부 은행의 경우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무실과 차량을 제공하기도 한다.

◇부행장 승진자 평균 나이 56세, 영업통 약진=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부행

장 승진자를 살펴보니 영업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른바 영업통(기업·소매·해외 영업 등)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준법과 내부통제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승진자도 4명에 달했다. 최근 환경, 이상외 환 거래 등 대형 금융 사고가 터지면서 내부통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범근 기자 nova@



주요 은행 여성 부행장

은행	이름	직책	나이
KB국민은행	곽산업	디지털사업그룹장	1968년생(56세)
신한은행	박현주	소비자보호그룹장	1965년생(59세)
우리은행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	1965년생(59세)
우리은행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1970년생(54세)
NH농협은행	이민경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1967년생(57세)

※출처: 각사

5대 은행엔 여성 부행장 5명뿐... 5.3%에 그쳐 깨지지 않는 두꺼운 '유리천장'

평균 나이 57세... 차별속 경쟁 치열
장벽 높은 만큼 더 많은 노력 필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리더들의 모습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은 유리천장의 벽이 두껍기만 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여성 부행장 비율도 올해 5.3%에 불과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전체 부행장 94명 중 여성 부행장의 수는 5명에 그쳤다.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장, 박현주 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 송현주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장,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이민경 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가 그 주인공이다.

5명 여성 부행장의 평균 나이는 57세로 집계됐다. 작년 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부행장 승진자의 평균 나이가 56세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 부행장의 평균 연령층이 높은 것은 아니다. 5명의 여성 부행장 중 광 부행장과 정 부행장, 이 부행장 등 3명이 이번 승진자에 포함됐다. 은행별

로는 우리은행이 2명의 여성 부행장을 두면서 가장 많은 비중(9.1%)을 차지했고, 하나은행은 여성 부행장이 1명도 없었다.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유리천장의 벽을 허물기란 쉽지 않다. 역대 여성 은행장도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강신숙 Sh수협은행장 등 3명에 불과하다.

여성 부행장들은 승진하기까지 높은 장벽이 있는 만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여행원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은행권에서 남성은 '일반직 행원', 여성은 '여행원'으로 분리 채용하면서 승진과 임금에도 차별을 뒀다. 여행원은 10년 근속 후 시험을 통과해야 초급 행원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결혼퇴직제도 있었다.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면서 결혼퇴직제는 1976년 여성 행원들이 중심이 돼 사회적 이슈로 만든 후 사라졌고, 여행원 제도도 1990년대 이후 사라졌다. '은행의 별'이 된 여성 부행장들은 그만큼 차별적인 시선 속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며 성장해왔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저력 있는 피부
빛나는 자신감**
아이오펜 슈퍼바이탈 크림

하루 아침에 달라지는 내 피부의 힘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 판매처 | 전국 아리디움 매장 및 마트 *제품 사용 1일 후 설문조사 결과

이통3사 수장, MWC 총출동... 'AI·6G' 신기술 발굴

MWC 26~29일 스페인에서

국내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에 총출동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대표는 인공지능(AI)·6G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가 주관하는 이번 MWC 2024는 이동통신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국가-산업-기업의 협동 필요성을 뜻하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를 주제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

SKT와KT는MWC 2024에 전시관을 열고 AI·6G·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을 선보인다.

SKT는 이번 MWC 2024 핵심 전시장인 '피라 그란 비아' 3홀 중앙에 992㎡(약 300평) 규모의 대형 전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시작, 변곡점이 될 AI'를 주제로 텔코 중심의 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SKT는 텔코 거대언어모델(LLM)을 바탕으로 △챗봇이 구현된 버추얼 에이전트 △AI 기반의 스팸·



이통3사 CEO가 이달 26일~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에 총출동한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제공 각사

UAM 교통을 관리하는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LLM이 적용된 AI 반도체, 소버린 AI 등 초거대 AI 협력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유 키보드·전기차 충전기·택시용 스마트 사이니지에 적용된 온디바이스 AIoT 블랙박스(EVDR) 기술을 체험하는 존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시관을 차리지 않는 LG유플러스는황현식대표와정수현커스터머부문장, 권준혁 네트워크 부문장, 권용현 기업부문장, 황규별 최고데이터책임자(CDO), 이상엽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주요 경영진이 참가한다. 참관단은 5.5G 6G, AI 등 핵심 기술과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서비스와 상품 전시 외에 AI 기반 솔루션, 5G 기반 산업 혁신, XR/메타버스 기술 분야 선두주자와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구글(빅텍), 아마존웹서비스(IT서비스), 해외통신사등 다양한 영역의 파트너사와 미래 협력 방안을 의논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MWC 2024에서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플랫폼 신사업의 기반과 차별적 고객가치에 기반한 성장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SKT, LLM 기반 챗봇 스팸 필터링·콜센터 등 소개

스미싱 필터링 시스템 △AI 콜센터(AICC) 등 다양한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텔코 특화 LLM을 기반으로 구축한 해당 기술들은 통신사발 AI 혁신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MWC 현장을 찾은 유 사장은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

KT, 항공망 특화 UAM 체험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 공개

이다. 유 사장은 "이번 MWC 2024는 SKT가 보유한 핵심 AI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세계적 기업들과의 초협력력을 통해 '글로벌 AI 컴퍼니'로 빠르게 변모하겠다"고 강조했다.

KT 전시관은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LG U+, 기술트렌드 집중탐색 구글·아마존과 협력방안 논의

혁신 파트너 KT"를 주제로 넥스트 5G와 AI 라이프 총 2개 테마존으로 구성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및 AI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KT의 디지털 기술을 소개한다. 넥스트 5G 존에서 KT는 항공망에 특화된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UAM 체험 공간과 AI로 안전하게

'실적 한파' 양극재, 바닥 다졌나... 곳곳 회복 조짐

리튬가격 안정화 속 재고 조정 1분기 출하량, 30% 증가 전망 수출 기저개·신규 수주 기대

지난해 전방 수요 부진과 리튬 가격 폭락으로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었던 양극재 업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원재료인 리튬값이 하향 안정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중 재고 조정이 일부 완료되며 1분기 출하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증권가 및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니켈·코발트·망간(NCM) 계열 양극재 기업들의 1분기 출하량은 지난해 4분기보다 평균 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NCM 양극재는 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로, 국내 기업들의 주력 제품이다. 업체별 증가율은 LG화학 40%, 엘앤에프 30%, 포스코퓨처엠 20%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 등 원재료 가격 급락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었다. 특히 4분기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반영되며 적자 폭이 커졌다.

엘앤에프는 지난해 연결 기준 222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4분기 발생한 재고평가손실만 2503억 원에 달한다. 에코프로비엠도 작년 4분기 1147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재고평가손실 1245억 원이 반영된 결과다.

포스코퓨처엠의 양·음극재 사업을 담



양극재 핵심 원재료인 리튬 값이 하향 안정화하면서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었던 양극재 업체의 출하량이 1분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에코프로비엠 근로자가 생산된 양극재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코프로

당하는 에너지소재사업부도 작년 117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고객사 수요 둔화로 판매량이 감소했고, 메탈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재고평가손실 742억 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1분기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 지표도 올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달 1~10일 NCM 양극재 수출 중량은 일평균 약 940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대비 144% 이상 증가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업황 둔화가 시작된 지난해 상반기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익성 악화의 주요인이었던 메탈 가격 하락세도 멈췄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리튬 가격은 이달 들어 1만 3250달러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수주로 인한 출하량 증가도 기대된다. 최근 LG화학은 제너럴모터스(GM)와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부터 10년간 양극재 50만 톤을 공급한다. 2022년 양사가 95만 톤 양극재 장기 공급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맺은 만큼 업계에서는 추가 계약 가능성도 점친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12월 삼성 SDI와 44조 원 규모의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 말까지다. 물량 규모는 약 84만 톤으로 추산된다. 에코프로비엠은 2025년 이후 납품할 물량을 위해 헝가리에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다.

또한 양극재 업체들은 중저가용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 미드니켈이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용 양극재 등 제품 다변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연내 LFP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엘앤에프도 2025년 말 LFP 양산을 계획하고 고객사에 샘플을 제출한 상태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좋은 상황"이라며 "고객사 협의를 통해 양산 일정을 조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viaj@portune@

"IT 회복에 對中 무역수지 개선 과거 같은 일방적 흑자 어려워"

무렵, 對中 무역 진단 보고서 반도체 등 5대 품목 수출 확대 핵심 광물 수입처 다양화 시급

IT 경기 회복으로 올해 한국의 대(對) 중국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중국 제품 자급률 확대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대중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최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IT 경기 반등에 힘입어 우리의 대중국 수출과 무역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의 IT 수요 회복 속도(9.3%)는 글로벌 IT 수요 회복세(6.8%)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중 수출액이 줄어든 반도체·컴퓨터·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가전 등 5대 IT 품목의 대중 수출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고서는 "IT 품목의 수출 반등과 무역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기동력화 품목의 수입 증가 및 무역수지 악화세가 두드러져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대중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극재,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등 전기동력화 품목의 무역수지 감소 폭은 매년

크게 확대돼왔다. 전기동력화 품목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20년 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64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다. 철강, 석유제품 등 기타 비IT 품목의 무역수지가 감소세인 점도 전체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19.9% 감소한 것에는 글로벌 IT 경기 부진과 더불어 한국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5대 IT 품목의 대중 수출 감소액은 198억 달러로 전체 수출 감소액(310억 달러)의 64%를 차지했다.

중국의 IT 기술력 향상으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 또한 대중국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수출 경쟁력 변화를 평가하는 불변시장 점유율(CMS)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요인은 △상품구성 악화(37.9%) △경쟁력 약화(31.9%) △중국의 수요 감소(3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력 약화 요인은 주요국 중 미국 다음으로 컸다.

김우중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국에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현지 소비 동향 및 수입구조 변화 예측과 이에 따른 우리 수출 구조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터리 원료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양화, 국산화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문정 기자 kangmj@



1000

1954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정통 SUV의 자존심

KGM으로 이어지다

KGM 70주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KGM 70주년 감사 1954돈 골드바 증정 이벤트

- 3월까지 구매 또는 상담 고객 중 추첨하여 총1,954돈의 골드바를 드립니다.



“1세대 실손보험 초과액, 보험사에서 못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서 환급받은 금액〉

대법 '본인부담상한제' 첫 판결

보험금 지급 기준 없어 논란 1심 보험사, 2심 가입자 승소 청구소송 원심 깨고 파기환송 “건보공 환급, 보상 대상 아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16회, 체외충격파치료 7회 등을 받은 뒤 보험사에 입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같은 해 11월 A 씨의 청구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11만 원은 병원 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인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2008년 11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표준약관이 없다.

1심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인정했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라며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특약에 관한 부분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해 고액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A 씨가 지출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

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받은 부분은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spes@

서울, 늘봄학교 참여율 꼴찌... 부산·전남은 100% 운영

서울 서이초 사태로 참여율 6% 업무부담 가중에 교사 반발 심해 일부 초교 신청 후 번복하는 일도 서울시교육청 “교사 의견 살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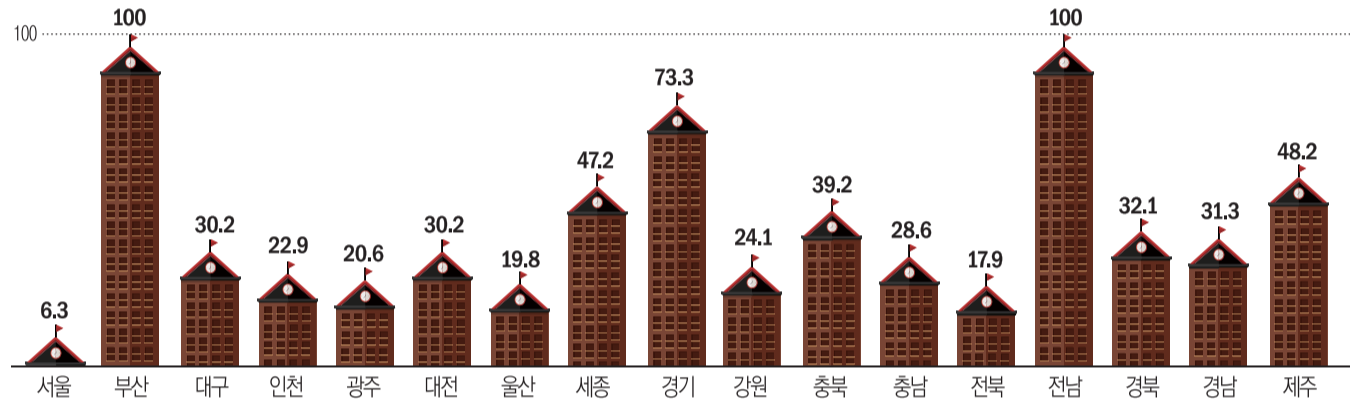
올해 1학기 서울지역 늘봄학교 운영이 6.3%(38개)에 그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산과 전남은 모든 학교에서 올해 1학기 100%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선정(예정)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현황은 16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을 집계한 것이다. 15개 시도교육청이 발표를 완료했고, 나머지 경기도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19일까지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늘봄학교 선정(예정) (단위: %, 2월 16일 기준)



※ 전국 6175개교 중 2741개교 늘봄학교 운영(44.3%)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달하는 2700여 개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수(608곳) 대비 늘봄학교 참여 수(38곳)가 가장 저조한 곳은 서울 지역으로 참여율이 6.3%에 그쳤다. 전국에서 늘봄학교 참여율이 10%가 안 되는 곳은 서울뿐이다.

그외 전북(17.9%)과 울산(19.8%)은 참여율이 20%를 밑돌았고, 광주(20.6%)·인천(22.9%)·강원(24.1%)·충남(28.6%)도 20~30%에 머물렀다. 나

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특히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100%)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참여 학교 수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기(975교) △전남(425교) △부산(304교) 순이다.

전국적으로 2700여 개 학교에서 늘봄

학교가 운영 예정이지만, 유독 서울 지역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지난해 서이초 사태 이후 일선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에 따른 거부감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때문에 서울 지역의 경우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참여를 신청했다가 번복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도입이) 교육적인 의미가 있지만, 물량에 매몰돼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살피서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출몰을 위해 세심히 준비하고 계산 학교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 1학기 운영 예정인 늘봄학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2월호 발매



BRAVO SPECIAL 즐거운 나이 들, 웰컴 에이징

- PART 1.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삶 '마음 나이'로 살기
- PART 2. 20년 천천히 나이 드는 법
- PART 3. 퍼스널 컬러·메이크업으로 아름다운 '나다움'
- PART 4. 나쁜 다이어트에서 탈출, 숫자 아닌 몸을 치료하라
- PART 5. 노화 늦추고 신체 대사 높이는 운동법

BRAVO INTERVIEW



배우정찬
젊음의 질주는 계속된다



레시피
간고등어찜과 고막전
법률 가이드
효도와 상속·증여, 가족 간 사랑과 법의 교차점



브라보 여행
겨울엔 섬이다, 신안섬 이야기



연습리 이슈
전통시장은 장 보는 곳? 아니, 놀러 가는 곳!



김장권 북촌HRC 대표
“한옥은 오래된 미래”
회한 소급해주는 집 짓는 건축가



귀농귀촌
남들은 뜰어말렸지만
얻을 건 다 얻었다



하방비책
겨울철 원인 모를 어지럼증, 뇌졸중 전조 의심해야



지역문화유산순례기
강직하지만 속은 좁았던
사람의 넋을 찾아

2월도 쌍특검·이태원·선거제 공방... 민생법안 막차 놓치나

‘2월 임시국회’ 막을랐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2월 임시국회가 19일 시작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진행하고, 22·23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

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 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 핵심 쟁점 이태원특별법·선거구 획정 주목

실거주 의무 폐지·중처법 유예 등 ‘후순위’ 밀린 민생법안 처리 난항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확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확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확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민생 법

안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연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행)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 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행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료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융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與, 윤재옥·추경호 등 12명 단수공천 대통령실 출신 주진우·이승환도 포함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우선추천’ 부산 동래·연제 등 22곳은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역인 윤재옥·김도읍·추경호·김미애 의원 등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이승환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개 선거구에 단수 후보자를 추천했고, 22개 선거구는 경선을, 3개 선거구는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관위는 전날(17일) 면접을 진행한 부산·대구·울산·강원 지역에 대한 단수공천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 지역 추가 단수공천자까지 포함해 총 12명 규모다.

하태경 의원이 떠난 부산 해운대갑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법률비서관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도읍(북구·강서)·김미애(해운대)·정동만(기장) 의원은 자신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단수공천이 확정됐고,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사하구갑에서 본선을 치르게 됐다.

대구 지역의 경우, 윤재옥(달서)을 원내대표와 재선인 추경호(달성) 전 경제부총리가 단수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에선 △박정하(원주갑) 의원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김완섭(원주)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울산에선 권명호(동구) 의원이 본선 직행 티켓을 따냈다.

서울 지역 추가 단수공천자도 발표됐다. 앞서 14일 발표 당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서울 중랑을 단수공천이 최종 확정됐다.

경선 지역도 일부 확정됐다. 서울(1), 부산(6), 대구(5), 대전(2), 경북(5), 울산(1), 세종(1), 경남(1) 등 모두 22개 선거구다. 먼저 부산의 경우, 동래구에서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조경태 의원도 자신이 5선을 지낸 부산 사하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그 외 이현승 의원(부산진)은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백종현 의원(금정)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주환 의원(연제)은 김희정 전 의원, 전봉민 의원(수영)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각각 맞붙는다.

대구에는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도대우



‘명룡대전’ 승자는?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계양축구협회 사무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자유변호사회 회장·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 서구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북구를 김승수 의원·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울산에선 서병수(울주) 의원, 경북에선 김경재(포항 북), 김병욱(포항 남·울

릉), 김석기(경주), 구자근(구미갑),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 현역들이 치열한 경선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당의 현신요구를 받아들여 출마 지역구를 옮긴 서병수(부산북·강서갑)·김태호(경남·양산)·조해진(경남·김해) 의원은 모두 이날 우선추천(전략공천) 됐다.

김재 기자 silverash@

녹색정의당 “지역구 연대” 민주당 “조속히 논의 시작”

정의당, 비례연합정당 불참

녹색정의당은 18일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에 불참하는 대신 접전 지역구에서의 야권 연대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의힘 의석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구는 연대하고 비례는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명분을 가장 극대화하고 유권자 사표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기 힘든 시민들, 억압받는 ‘을’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녹색정의당마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이분들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 투표하지는 않겠지만 투표장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표가 양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지역구 연대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든 곳에서 지역구 연대를 할 필요는 없지만, 2016년 총선 당시 창원성산에서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됐듯 접전 지역에서의 지역구 연대는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는 민주당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를 위한 협의회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 진보정당들과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연합이 여의찮은 경우에도 연동형 도입과 연합정치 실현이라는 당초 취지는 그대로 살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영민 기자 oin@

〈하루 1만5000원〉

與 “군 장병 급식비 2000원 인상... 상해보험 전면 시행”

‘안전 국방’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2021년 국방부는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위탁 급식 회사에 현지 지역 주민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군무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당은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현재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는 관사 혹은 간부 숙소 등 주거시설도 지원한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이사화물비 부담도 낮춘다. 그동안 군인의 이사 비용 지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고, 사다리 비용과 에어컨 이전비용 등이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함께 군인 부부의 자녀를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안전대책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정선, 충남 서천 등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보험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다. 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한다. 군의 안전을 책임질 총괄센터를 설립해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육해공 등 각 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담당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자는 것이다.

김재 기자 silverash@

부영발전출산지원금에... 정부 '근로소득 분할과세' 검토

정부가 내달 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무게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분할 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다만 부영이 제안한 기부금 면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정훈 기획재정부세제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할 문제"라며 "증여나, 근로소득이나 계속 고민·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원(가족 포함)에게 돈을 줬다면 명분이 체력단련비든 명절수당이

부영 제안 '기부금 면세' 어려워
정부 "증여 vs 근로소득 고민"

근로소득 반영엔 법인세 부담↓
분할과세시 근로자 세율 낮아져

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분할과세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400만 원 이하), 15%(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4%(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500만 원이 되므로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도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급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급·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영그룹에서 제안한 '기부금 면세' 방안은 요건이 까다롭고 기업이 직원에게 준 돈을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영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현실은 비

과세 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 원이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으로 연간 비과세 한도(12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앞서 이종근 부영 회장은 이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냉동과일 수입량 사상 최대 냉동과일 수입량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냉동과일 수입량은 6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다.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냉동 과일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中이 가른 IMF·OECD 세계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IMF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3% 초반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OECD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2%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IMF는 1월 세계경제전망발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1%를 제시했다. 이는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3.1%)과 같은 수치이며 IMF가 작년 10월에 제시한 기존 올해 성장률 전망치(2.9%)보다 0.2%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IMF는 성장률 상향 이유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양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종전 전망치(1.5%)보다 0.6%p 오른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

中 성장률 전망 4.6% vs 4.7%
세계경제 3.1% vs 2.9% 엇갈려

으로 전망됐다. 중국 성장률은 종전 4.2%에서 4.6%로 0.4%p 상향 조정됐다. 인도는 종전보다 0.2%p 오른 6.5%로 예측됐다.

이러한 IMF 전망은 OECD가 내놓은 중간 경제전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OECD는 2일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작년 11월 2.7%)보다는 0.2%p 오른 수치지만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3.1%)보다는 0.2%p 낮은 수치다.

주요국의 거시경제 정책 제약과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 등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완만히 둔화될 것이라던 OECD의 분석이다. OECD는 올해 미국 성장률에 대해 IMF와 마찬가지로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1.5%)보다 0.6%p 상향된 것이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소비, 실질임금 상승과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상향조정 이유다.

IMF와 OECD 간 분석에서 큰 차이는 보이는 것은 중국 경제 전망이다. OECD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IMF(4.6%)보다 높은 4.7%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종전 전망치에서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OECD는 "중국은 소비심리 제약·높은 부채·자산시장 약세 등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가 올해 세계경제가 작년보다는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두 기관의 이 같은 온도차는 중국 경제와 밀접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p 오른 2.3%로 제시한 반면 OECD는 종전보다 0.1%p 내린 2.2%로 제시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정광테크 제재

도면받아 낮은 금액에 타업체 의뢰
공정위, 벌금 3000만원·시정명령

하도급업체에서 설계 도면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업체를 통해 제작비를 낮춘 정광테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에 대해 기술유용 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 제조를 A 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광테크는 A 업체로부터 최종 발주처 제출을 이유로 시작금형 도면을 요구해 받았다.

정광테크는 이후 이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보낸 뒤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금형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광테크는 A 업체가 양산금형을 포기했고, 도면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광테크의 자료 요구가 범위를 벗어난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업체에 제공한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아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정광테크는 다른 업체에 도면을 제공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여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제조업 봄바람... 반도체·자동차 등 전망 '맑음'

산업연구원 3월 업황 PSI

전망치 119... 3개월 연속 개선

3월 제조업 경기 개선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135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3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19로 3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다고 18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3월 업황 전망 PSI는 전달(104) 대비 15포인트 올랐다. 세부 지표를 보면 내수, 수출, 생산이 각각 110, 122, 118로 고르게 개선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이 128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

업종	내수	수출	생산수준
제조업 전체	119	110	122
반도체	165	147	165
자동차	119	115	133
화학	106	106	106
바이오·헬스	118	118	135

냈고, 기계 부문과 소재 부문도 각각 114, 113으로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왔다. 철강 업황 상황 부진 등으로 최근 부진했던 소재 부문은 5개월 만에 기준선 위로 상승했다. ICT 부문을 세분화해서 보면 반도체가 전달(155)보다 10포인트 높은 165를 기록했고, 디스플레이와 전지는 각각 111과 118을 나타냈다.

한편, 2월 제조업 업황 현황 지수는 105로 7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고, 전월(102) 대비로도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제조업 현황 지수는 내수(98)가 3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지만, 수출(103)이 100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103) 역시 3개월 연속 기준치를 넘었다. 올해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식도 강해지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IBEE Friends

“금융계를 달달하게 책임질 아이돌이 나타났다”

우리가 꿈꾸던 꿀같은 금융생활이
다시 펼쳐집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트럼프, 나토 협박” “푸틴, 정적 제거”... 성토장 된 ‘안보회의’

뮌헨서 세계 최대 안보회의

전 세계 국가안보당국자들이 총집결한 올해 독일 뮌헨 안보회의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리스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 소식이 뒤덮었다.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을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트럼프는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 유세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내지않

힐러리 “트럼프, 나토 탈퇴할 것”

네덜란드 총리 “나토 힘 키워야”

러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 사망

이틀전 교도소 CCTV 제거 의혹

젤렌스키 “푸틴, 누구나 죽인다”

는 나토 회원국들을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햄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은 “나토는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탈퇴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는 대통령 임명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토를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



육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올리아 나발니야. AFP연합뉴스

켰다.

미국에 휘둘리기보다는 유럽 회원국들이 힘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트럼프에 대한 앓는 소리와 징징거림, 잔소리는 그만하라”며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연스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은 헌신적인 나토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력한 나토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사망 소식은 뮌헨 안보회의 참석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나발니의 육중 사망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은 야당 지도자들 자신의 표적이든 원하면 누구든 죽인다”며 “푸틴은 부패와 폭력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보회의 참석자 뮌헨에 있던 나발니의 부인 올리아 나발니야는 전날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무대에 올라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우리나라와 내 가족, 내 남편에게 저지른 일로 벌을 받을 것”이라며 “그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곧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사망한 나발니를 추모했다. 안토니오 타지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나발니는 사실상 사형에 처해졌다”며 “러시아는 그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발니의 사망 발표 이틀 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들이 그가 투옥돼 있던 교도소를 방문해 CCTV와 도청 장치 연결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권단체 ‘굴라구닷넷’은 러시아 연방교정국(FSIN) 지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당사국들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과 안정성 회복 실현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전이현 기자 cahyun@

“딥페이크 선거악용 막아야” 빅테크 20곳, 방지책 약속

오픈AI·MS·알파벳·메타 등 동참

‘챗GPT’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돌풍을 일으킨 오픈AI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등 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20개사가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선거악용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성명을 내고 ‘2024년 선거에서 AI의 기만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협약’을 공개했다.

협약에는 AI가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를 자동으로 검출, 배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가짜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워터마크 등 출처를 표시하는 기술을 개발, 공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들의 노력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이번 협약에는 아마존닷컴과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등 플랫폼 기업들도 참여하기로 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AI가(혼자서) 가짜 선거 뉴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는 데 AI가 도움 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관련 움직임을 보인다. 다만 전 세계 주요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AI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성형 AI가 나날이 발전하는 점도 이들을 서두르게 했다. 오픈AI는 15일 텍스트 기반의 챗GPT에 이어 동영상 프로그램인 ‘소라(Sora)’를 공개했다. 이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1분 이내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신제품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기술·미디어 감시단체인 프리프레스의 노라 베나비데즈 변호사는 “선거절마다 기술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을 약속했고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자발적인 약속은 민주주의가 직면한 전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있는 바쁜 해에 AI가 초래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해결하려면 인적 검토와 법 집행 등 강력한 콘텐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택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택신 친나랏 전 태국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경찰병원에서 나와 자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있다. 그는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8월 귀국해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8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왕실의 사면으로 1년형으로 감형됐고 검찰은 지난주 택신 전 총리가 가석방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형을 선고받은 지 몇 시간 만에 고혈압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지금까지 머무르면서 특혜 수감 논란을 촉발했다. 방콕/AFP연합뉴스

유럽 경제 비상... 주요국 을 성장률 전망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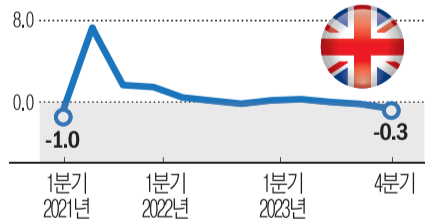
佛 1.4%서 1%로, 獨 1.3%서 0.2%

EU, 작년 5월 이후 세 번이나 낮춰
전쟁·기후·선거 탓 극적 회복 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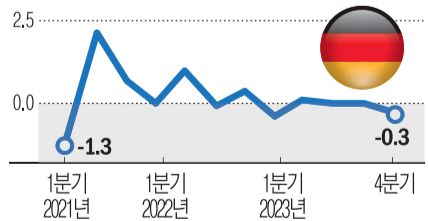
수년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어온 유럽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기술적 경기침체부터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까지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은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이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중전 1.4%에서 1% 수준으로 하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며칠 전 르메르 장관이 전망치 하향을 시사한 만큼 유력해 보인다. 르메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성장률은 미국보다 훨씬 낮고 모든 유럽 국가들이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망 악화는 긴축이나 증세 없이 국가재정을 개선하려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영국 경제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독일 경제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 출처: 트레이딩이코노믹스

1.3%에서 0.2%로 대폭 하향했다. 독일은 지난해 0.3% 역성장률 기록하며 경기침체에 빠진 상태다. 여기에 올해 예산안마저 대폭 축소되면서 충분한 부양책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15일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작년 3분기에도 역성장을 기록한 영국은 독일에 이어 기술적 경기침체에 진입했다. 통상적으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영국은 생산과 서비스, 건설 부문에서 경기가 모두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벽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유럽 경제가 극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파울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지정학적 긴장과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기후, 올해 전 세계에서 열리는 주요 선거 등이 모두 유럽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국무 “러, 우주에 핵무기 배치 가능성”

EMP로 글로벌 통신 무력화 우려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배치 기술이 진일보함에 따라 미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전시대 우주경쟁을 벌였던 양국이 향후 우주전쟁 시대를 열지 우려가 고조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중국과 인도의 외교수장을 잇따라 만나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주에서 러시아가 핵폭발을 일으키면 미국 위성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위성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그는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을 무시하는 상황”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를 저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몇 년간 러시아나 중국이 핵폭발로 엄청난 에너지파를 생성해 인공위성을 대량으로 파괴할 수 있는 핵전자기파(EMP) 무기를 개발 중이거나 시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 인도에 러시아를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러시아 개발 수준이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시급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EMP로 인한 대규모 위성 파괴가 발생하면 글로벌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벤처協 수장 성상업...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회장 취임 1년...육성책 펼건어

“글로벌 선점 여부는 향후 10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성상업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올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상시화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숙원 과제를 해결한 만큼 올해에는 벤처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장기적인 육성책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핵심은 ‘글로벌화’다. 벤처기업-글로벌화-협회의 지원 ‘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실행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내 벤처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4만 개(벤처확인기업)를 넘어서고, 2022년 기준 매출 211조원, 고용 81만 명으로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속빈 강정처럼 질적 성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성 회장은 올해 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벤처기업은 아직도 전세계 GDP 1% 수준의 국내 내수시장을 탈피 못하는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 글로벌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글로벌시장 선점 여부는 향후 10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은 뒤 해외 진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내 벤처기업들의 번거롭고 해외 무대가 가장 절실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는 성 회장이 지난해 2월 취임 때부터 강조한 포인트다. 금융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지목했다. 국내 벤처 생태계가 양적 성장에 비해 역사가 짧아 생태계 완성도가 미흡하고, 내수시장 집중으로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는 점에 주목했다. 성 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벤처 창업 후 실제 성장과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글로벌화를 통해서다”라며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혁신기업의 원가 경쟁력과 재무성과도 강화된다”

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벤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실제 협회는 2022년 글로벌지원팀을 신설한 이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협회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조직을 통해 회원 기업의 제품 현지화와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한다. 상시중개를 통한 해외 수요기업과

소규모 내수시장 탈피 핵심과제 기술 전문인력·글로벌 투자 유치 해외 현지 기관 IR 지원 등 약속

‘주 52시간제’ 경직성 한계 개선 ‘모래주머니 법’ 규제 혁파 예고

희망 벤처기업을 주선하는 역할도 맡는다. INKE 조직은 현재 21개국 40개 지부로 구성·운영 중이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 해외 거점과 헬스케어 같은 진출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해외 현지 기관 대상 IR 등을 지원한다. 해외 유망 전시회 등을 통해 다테크 분야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에 맞춰 현장의 의견도 전달한다.

〈벤처 정책 토대 만든 1년 - 성 회장은 이달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숨겨진 달려온 1년이였다. 2020년부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을 맡아오며 조력자 역할을 했지만, 지난해 2월 협회 수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성 회장이 협회를 이끌기 시작한 시점은 복수의결권 통과와 벤처기업법 상시화 등 민감한 과제를 안고 있던 시기다. 어떤 정책이 기업에 단비가 되는지 끈질기게 목소리를

성상업 벤처기업협회장 주요 프로필

- 1972년 12월 31일 출생
- 대구달성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연도	주요 이력	주요 상훈
1999~2000년	액센츄어(구 앤더슨 컨설팅) 컨설턴트	
2004~현재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2008년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상
2006~2015년	인텔리안시스템즈 대표이사	2011년 제48회 무역의날 장관 표창
2016~2020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2011년 산업기술진흥유공자 대통령 표창
2020~2023년 1월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2018년 제19회 전파방송기술대상 대통령상
2023년 2월~현재	벤처기업협회 회장	2022년 무역협회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내면서 복수의결권은 지난해 4월 국회 문턱을 넘어 같은 해 11월 시행에 들어갔다. 벤처기업법 상시화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2016년)되며 한시법으로 운용됐다.

성 회장은 “아직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없다. 제도 도입 요건 충족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 내부적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2월을 기점으로 도입 기업들이 속속 나올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경영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창업주들에게 가문의 단비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벤처기업법 상시법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벤처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성과조건부 주식(RSU)도 도입된다. RSU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의 단점을 보완할 제도로 꼽힌다.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로 미국 등에서 스

특육선보다 널리 활용된다.

◇2년 차는 더 촘촘하게 = 취임 1년이 벤처업계 정책의 발판을 만든 해였다면, 2년 차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뿌리는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각종 글로벌 진출 지원은 물론 모래주머니 제거, 금융지원 활성화, 인재 확보 지원 등이다.

최근 벤처업계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 회장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E-7(전문인력)비자 개선과 RSU안착 등 업계 특성을 고려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그가 강조하는 지점이다. 그는 “주 52시간제는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저하하고, 자율적인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 회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에도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과 근로시간제 월 혹은 연 단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규제혁파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환경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많은 법적 규제들이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일반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의 장애물로 작용해 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벤처재창업공제 사업을 추진, 창업 실패 시 재도전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성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벤처기업은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희망이자 돌파구”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www.hauri.co.kr

“새로운 바이로봇으로 보안을 강화하다”

더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워진 통합백신 - 바이로봇

- 듀얼엔진과 행위기반기술이 적용된 통합보안솔루션 - 바이로봇 시큐리티 1.0
-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 - 바이로봇 시큐리티 서버 1.0
- 조직내 백신 및 보안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 바이로봇 매니저 1.0

(주) 하우리 | 서울시 용작구 만양로 104 | 대표전화 02-3676-1100 **HAURI**

현장경영·주말 사장단회의... '조직 고삐' 죄는 재계총수

새해부터 긴장감 높이기 총력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재계 오너 일가가 연초부터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 넣고 있다. 국내의 현장을 돌아보며 임직원들을 독려하는가 하면, 그동안 없었던 주말 경영진 회의를 부활시키는 등 조직 다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선고 이후 국내외 사업장을 점검하며 현장 경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회장은 설 연휴인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에 있는 삼성SDI 생산법인을 찾아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일주일만인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점검한 이 회장은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

이재용, 9일 말레이시아 사업장 이어 16일 삼성바이오 인천사업장에

SK, 24년만에 주말 경영진회의 최창원 의장·계열사 CEO 참석 최태원 회장은 해외 현장경영

아가자"고 독려했다. 경기 침체로 반도체 등 일부 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주력 사업을 챙기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연말 인사에서 대표이사직 속으로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하고, '반도체 신화'의 주역인 전영현 부회장에 지휘봉을 맡겼다. 미래사업기획단은 10년 후 패러다임을 전환할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SK그룹 역시 고강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요일인 17일 SK그룹은 주요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ADC(항체약물접합체) 제조시설 건설 현장에서 관계자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경영진에 한데 모여 전략글로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진 6~7명기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내외 경영 환경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전략글로벌위원회는 월 1회 평일에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작년 말 인사에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이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맡은 뒤 격주 토요일 개최로 바뀌었다. SK그룹이 '사장단 회의' 성격의 토요일 회의를 부활시킨 건 2000년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월 임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경영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내실을 갖추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 줄을 고쳐 매다)의 자세를 주문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은 글로벌 현장 경영 행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 그는 연초부터 해외 주요 국가를 방문해 유력 인사 미팅을 이어왔다. 26~2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 통신 전시회 'MWC 2024'에도 참석한다. 최 회장은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경쟁 상황을 살펴보고, SK ICT 분야 주요 경영진과 디지털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그룹 계열사 실적이 부진한 데다 글로벌 경영환경 불확실성도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직 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총수들의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경기 성남시 HD현대 판교 글로벌R&D센터(GRC)에 지난달 23일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가 문을 열었다. 기자가 실제 훈련장에서 조이스틱으로 RC 건설장비를 조종하고 있다(왼쪽 사진). 굴착기 캐빈에 구현한 VR 체험공간에서는 건설장비 움직임을 현실과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 HD현대사이트솔루션

1월 국제선 항공객 57%↑ 중노선 이용객 1년새 8배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 수가 전년 동기보다 57%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 노선 이용객은 전년 동기보다 8배 이상 늘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은 총 728만489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57%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과 비교하면 회복률은 91% 수준이다. 전년 대비 여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노선은 중국이었다. 지난달 중국 노선 이용객은 총 87만3329명으로 지난해 동월(10만4813명)과 비교해 733% 증가했다. 다만 2019년 1월과 비교해 지난달 중국 노선 여객은 63% 수준이다.

항공업계는 운항을 멈췄던 중국 노선을 정비하며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4월 말부터 인천-장자제-장저우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제주항공도 울하계 스케줄을 편성하며 인천-스자왕 노선을 재운항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노선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노선 여객은 203만4527명으로 지난해 1월(132만8787명)보다 5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회복률은 101%다.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계 노선은 지난달 318만5813명이 이용해 지난해 동월(218만3500명) 대비 46% 늘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96%다. 지난달 미주 노선 여객은 48만2747명으로 18%, 유럽 노선 여객은 32만6228명으로 21%, 대양주 노선 여객은 29만3765명으로 26% 각각 늘었다. 강문정 기자 kangmj@

건설중장비 운전, VR로 익힌다... 신기술 역량강화 산실

르포 HD현대 버추얼 센터

"일반인이 굴착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운전하려면 위험한 것도 있지만, 충격·공음에서 오는 두려움이 크다. 하지만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에서라면 이 같은 걱정 없이 마음껏 장비를 몰아 볼 수 있어 빠르게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 (오대진 HD현대사이트솔루션 구조연구팀 책임연구원)

지난 15일 진눈깨비를 뚫고 찾은 경기 성남시 HD현대 판교 글로벌R&D센터(GRC). 100㎡ 규모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에 실제 작동 원리를 적용한 원격제어(RC) 건설장비들이 분주히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난달 23일 문을 연 버추얼 트레이닝 센터는

실제 작동원리 적용한 RC장비 안전사고 없이 건설기계 교육 제품검증 고도화하고 품질 제고

가상현실(VR),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건설기계 운전을 배울 수 있는 연습장이다. 굴착기, 휠로더, 지게차, 굴절식 덤프트럭 등 다양한 RC 건설장비와 실제 작업장을 14:1 비율로 축소해 실내 훈련장, 굴착기 캐빈(Cabin)에 구현한 VR 체험공간, 건설장비 원격조종 스테이션으로 구성했다.

실제 1인칭 시점(FPV) 드론을 운용할 정도로 RC 마니아인 기자가 느낀 소감은 현실과 매우 비슷한 정도로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점이다. VR 고글을

착용하면 실제 장비 운전석과 동일한 1인칭 시각으로 RC 모델을 운전할 수 있다. VR 고글을 착용하지 않을 때는 건설장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감을 익히는데 용이하다.

오 책임연구원은 "향후 원격 스테이션에 보령시험장 등 국내 사업장에 있는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곳에서 임직원들의 운전 교육을 실시, 건설장비에 대한 역량을 함양시킬 계획이다. 안전사고 없이 운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

에 따르면 건설분야 자동화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연평균 23.3%씩 성장해 2027년 78억8030만 달러(약 9조4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흥근 HD현대사이트솔루션 기술원 선형기술연구부장은 "휠로더나 굴절식 덤프트럭 등 무인 건설장비를 지금 당장 공사현장에 투입해도 될 정도로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제품에 대한 검증도 고도화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며 "단순히 제품만 파는 하드웨어 업체가 아닌 스마트 건설 솔루션 기업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국내외 무공해 중장비 사용 정책 두산밥캣 등 친환경 연료 굴착기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이 수소 지게차, 전기 굴착기 등 친환경·저탄소 제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친환경 건

설기계로의 전환을 유도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 제품 개발 및 출시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농산·사천·원주·안산·광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자, 내연기관 건설기계 엔진을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하는 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영국·네덜란드·독일 등에서 무공해 중장비 사용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독

일·프랑스·네덜란드 등은 유럽연합(EU) 내 현재의 중장비 환경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두산밥캣,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은 수소, 전기 연료를 기반으로 한 굴착기를 출시하거나 개발 중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해 8월부터 1.7톤(t)급 디젤엔진 전기굴착기를 판매 중이다. HD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안에 1.7톤급 미니 전

기 굴착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두산밥캣은 지난달 30일 인천 지게차 공장에서 '수소 지게차 1호기 출하식'을 진행했다. 두산은 올해 3톤급 수소 지게차 모델을 30대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향후 2톤·5톤급 제품군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건설기계 업체들의 친환경 제품 비중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주문·결제·할인·적립 우왕좌왕?... '일당백 알바' 여깁니다

탐방기UP페이하이어

통합 매장 관리 서비스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트렌드가 됐다.”

박준기페이하이어대표는최근본지와외서면인터뷰를통해이같이밝히면서“장기적으로는또어떤문제와변화가펼치질지모르기때문에뚜렷한방향성을갖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박대표는“페이하이어는기술을활용해매장을운영하는사장님들을돕고,이를통해매장을방문한소비자가지금보다더나은경험을누릴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밝혔다.

페이하이어는자영업자가매장을운영하는데필요한모든기능을제공하는‘통합매장관리서비스’다.2020년2월포스(POS)서비스로시작해키오스크,테이블오더(태블릿메뉴판),서빙로봇,고객관리,웨이팅,주방디스플레이시스템(KDS)까지솔루션을확장했다.

박대표는“이전에는모든서비스가흩어져있었다”며“당연히주문,결제고객데이터도분산돼있었고,매장에서유의미한정보를얻기어려웠다”고짚었다.이어“페이하이어는포스나관리자앱에서모든데이터를통합분석해매출증대,고객마케팅등을위한인사이트를제공하고있다”고설명했다.

박대표는기술이발전하면서늘어난서비스들이모두파편화돼매장운영이

복잡해진것을목격하고페이하이어서비스를구상하게됐다.그는“2019년제로페이를사용하려고한매장을방문했는데,사장님이포스기나스캐너대신개인휴대폰으로앱을켜서결제를따로받더라”며“결제를받으려고도입한포스가결제를받아주지못하는상황이의아했다”고말했다.

이후박대표는매장을방문할때마다카운터를눈여겨봤다.그러면서대부분의자영업자가간편결제,배달,예약,포인트적립등기능마다서로다른기기를올려두고사용하는어려움을알게됐다.

박대표는“이문제를해결하려면매장의중심에있는포스부터바꿔야한다고생각했다”며“‘포스’에묶이지않고컴퓨터,태블릿,휴대폰에자유롭게내려받아사용할수있도록출시한서비스가클라우드기반포스서비스‘페이하이어셀라’라고설명했다.

페이하이어는포스를도입할때당연하게여겨졌던복잡한계약이나설치과정도없었다.박대표는“온라인에서페이하이어카드단말기만한번구매하고,갖고있는기기에포스앱이나프로그램을다운받아연결하면쉽게사용할수있다”고덧붙였다.

매장에서카드결제를받으려면모든카드사와가맹계약을맺어야하는데,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로지정되며이절차도비대면으로혁신했다.

페이하이어출시당시에는‘인테리어효과’가주목받았다.박대표는“모바일기기에익숙한2030창업자들이커다란포

박준기 대표 “매장 무인화 추세”
클라우드 기반 포스 서비스로
메뉴판·서빙·고객관리 등 확장
분산됐던 결제 시스템 하나로
소자본 자영업자들에
인건비·구인난 해결

박준기페이하이어대표



스기 없이 무선으로 깔끔한 태블릿 포스에 호응해 줬다”며 “카페부터 입소문이 퍼지면서 식당, 주점, 학원, 미용실, 헬스장, 병원 등 우리 서비스를 찾는 업종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결국 예약, 웨이팅부터 주문, 결제, 적립, 문자 마케팅까지 고객 동선을 따라 매장에 꼭 필요한 기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이 매장을 경험하고 재방문하기

까지 모든 과정을 효율화, 자동화해 자영업자가 인건비, 구인난 걱정 없이 고객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하이어는 지난해 4월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굿워터캐피탈,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소프트뱅크벤처스, 해시드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포스텍홀딩스, 김기사랩 등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누적 35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박대표는 “이후에도 페이하이어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매장의 새로운 미래’에 관심 갖는 곳들이 있어 현재 시리즈 C 투자 유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하이어는 구인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와 무인화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객을 중심에 두고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대표는 “더 많은 고객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광고비 줄인 대교... 수익개선 신호탄

작년 매출 축소에도 적자폭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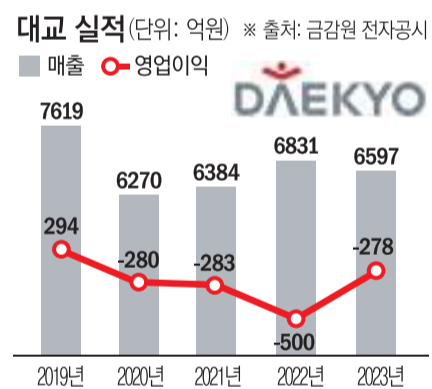
대교가 지난해 매출 축소에도 적자폭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마케팅 등 판매관리비 지출을 최소화한 영향이 컸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판매비 절감을 통해 적자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영업손실이 278억 원으로 전년보다 44.4% 개선했다. 매출은 6597억 원으로 3.4% 감소했으며 순손실은 963억 원으로 전년보다 29.3% 줄었다.

대교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전국 1000여 개의 오프라인 공부방 운영이 타격을 입으면서 창사 이래 처음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1000억 원 이상 급감했고, 28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후로도 적자를 지속해 손실 규모는 2021년 283억 원, 2022년 5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 기간 매출은 2020년 6270억 원에서 2022년 6831억 원까지 회복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학력 격차가 증가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리형 학습제품의 수요가 증가해 현재 온·오프라인 관리형 학습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엔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은 온라인 기반 타 경쟁사보다는 매출 감소폭이 작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교의 주력 사업인 눈높이 사업의 회복세와 자회사의 방과 후 학교사업, 트니트니 유아 체육 사업 등과 같은 사업



들이 꾸준히 실적을 회복하고, 광고 마케팅비 축소 등과 같은 판매관리비 절감에 따라 적자폭이 감소해 올해에는 더 나은 매출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교는 지난해 주력사업인 회원제 학습사업 광고판매비를 212억 원 지출했다. 올해에는 이보다 28.3% 더 절감한 152억 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판매비 지출 규모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회사 관계자는 “2022년 광고마케팅비와 디지털 투자비용을 공격적으로 집행하며 크게 늘었던 영업적자는 지난해 집행을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줬다”며 “이러한 기초를 유지해 올해 1분기부터 주력사업의 광고판매비 규모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이고, 기존에 투자한 신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교는 또 외국어 사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어 교습소를 늘려 대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습 제품을 개발하면서 실적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남호 기자 spdran@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정부 'OTT 구독료' 압박에... 토종업체 "역차별 우려"

지난해 촉발된 스트리밍플레이션(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뒷집지고 있을 수 없다며 요금 인하 압박이 나왔다. 인위적인 가격 개입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규제할 방안은 실질적으로 없어 국내 OTT의 부담만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OTT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테드 서랜드로스 CEO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넷플릭스 서울 사랑방'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요금제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구독료 인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난해 OTT 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올리자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OTT의 요금 인상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사업자들의 현황을

방통위, 지난해 말 구독료 점검 디지털 바우처 등 요금인하 추진

해외 OTT는 서비스 강제 어려워 넷플 "요금제 변동 없을 것" 일축 '만성적' 국내 업체만 발 동동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보다는 결합상품과 같은 서비스를 다양화해 할인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통신비 절감 정책을 마련했을 때와는 다르게 OTT 업계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사업자가 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은 미지수다. 국내 OTT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



러스 등 해외 사업자들이 상품 출시, 할인율 제고 등 방안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자 데미에 앞은 토종 OTT들은 요금인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2년 각각 1192억 원, 121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177억 원, 797억 원이다. 왓챠의 경우 2022년 영업손실 규모가 555억 원으로, 2019년 이후 4년째 자본잠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

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OTT 구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가 2022년 국내에서 거둔 영업이익은 142억 원 가량이다.

이에 국내외 플랫폼 간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OTT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더라도 글로벌 사업자들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내 OTT 업체들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국내 OTT들이 자급력이 상당한 글로벌 OTT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OTT가 역차별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국내 OTT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바우처' 사업도 국내·외 업체 간 역차별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업체를 상대로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흑자를 거두고 있는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은 제외됐다. 적자에 허덕이는 국내 OTT 업체들에만 비용을 지우고, 흑자를 거두고 있는 공룡 OTT 넷플릭스에, 유튜브 등은 피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통신요금 납부뿐만 아니라 OTT 구독료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5000여 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현실화 비거래소 사업자 "우리도 죽을맛"

거래소 사업자가 연달아 서비스 종료 발표하는 상황에서 비거래소 사업자 경영 상황 또한 녹록치 않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당장 매출도 고민이지만, 불명확한 규제 또한 보이지 않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총 4 곳이다. 해당 사업자는 모두 코인마켓 거래소로 캐서리스트, 코인빗, 후오비 코리아, 프로비트 등이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VASP로 등록된 국중비거래소 사업자가 누적된 경영악화로 서비스 종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VASP는 총 35곳으로 26곳이 거래소 사업자이며 나머지 9곳이 비거래소 사업자인 지갑·보관업자로 조사됐다(지난해 하반기 인피넷블록이 신규 VASP로 등록되며 현재 비거래소 사업자는 총 10곳). 이중 자본잠식 상태인 코인마켓 거래소는 18곳이다. 열악한 경영 상황을 대변하듯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영업중단이 이어졌다.

해당 조사에 비거래소 사업자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곳은 3곳이다. 거래소 사업자 26곳 중 18곳이 자본잠식 상태 빠지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에 비해 비거래소는 약 30% 수준의 사업지만 자본잠식 상태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나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거래소 사업자 기준 영



후오비·코인빗·프로비트 등 서비스 종료 1년새 4곳이나 VASP 등록 지갑·보관업자 절반 이상이 적자 늪 '허덕' "거래소 사업자 위주의 규제 비거래소 규제 구체화해야"

업적자를 기록한 곳은 6곳이다. 영업이익을 본 곳은 씨피랩스, 핵슬라트 등 2곳으로, 현재 회생신청 중인 텔리오와 하이퍼리움은 2022년 실적은 작성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재 갖춰지고 있는 규제가 거래소 사업자 위주의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7일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자

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거래소 규제와 함께 비거래소 사업자를 위한 체계도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거래소 사업자 관계자는 "법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제가 받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영역이 없다"며 "지갑·보관업자들의 경우 불공정 거래가 일어날 개연성이 거의 없어 기타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더 늘리고 명확히 한다면 매출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현재 VASP로 관리되는 거래소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만 최근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에 해킹이 다수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발행업체들도 VASP로 관리해 일정 비율을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들에 맡기면 해킹 예방은 물론 커스터디 업체들 또한 새로운 고객을 구해 매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 대해 시행령이나 하위 지침에 발행 재단을 포함한다면 투자자 보호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KT, 공공 마이데이터로 서류제출 업무 간소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없이 명의 변경 등 통신업무 처리 가능



KT모델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KT가 19일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통신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KT가 업계 처음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서류제출을 간소화한 업무는 △결합서비스이용 △명의변경 신청 업무이다.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업무에 우선 적용했으며, 이후에는 군인 요금제 신청 업무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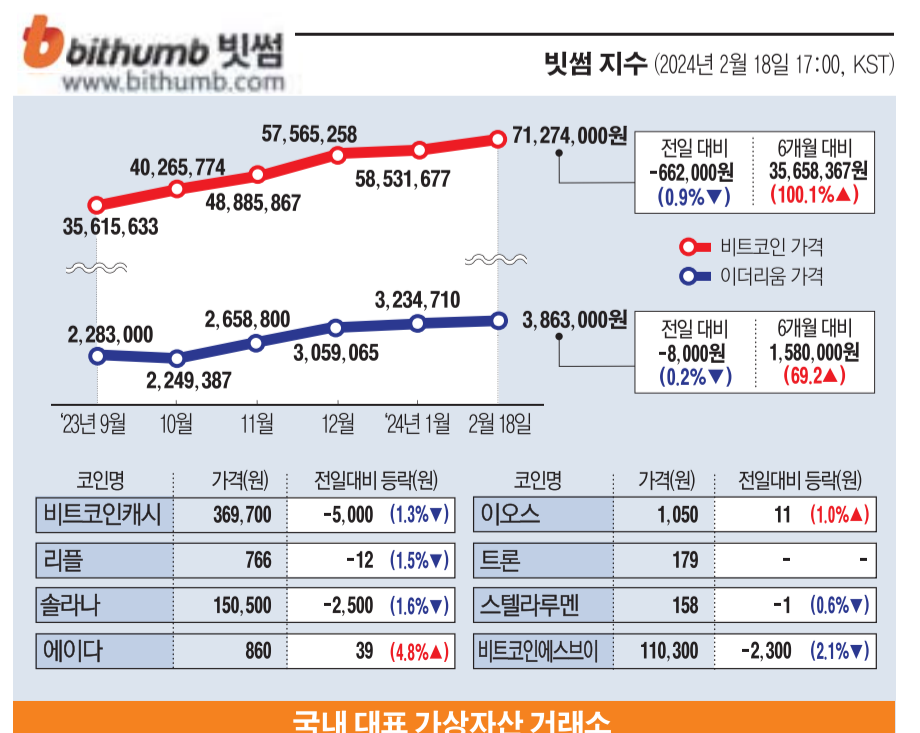
기존까지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고객이 휴대폰 PASS 본인인증을 통해 행정기관에 본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KT로 관련 정보를 제

공하게 된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손쉽게 통신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고객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 가능한 업무 유형들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T 영업본부장 권희근 상무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번거로운 제출 절차가 생략돼 고객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출서류 간소화 및 '우리가족대표'와 같은 고객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와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내가 못 찾을것 같았어?"

* EPISODE 02

꼭 찾아 찾는다

NONGHYUP BANK PRESENTS

꼭꼭 숨어있는 자산부터 금융혜택까지
손쉽게 찾는 디지털 बैं킹이니까

금융세상을 키우는 올원적 대담

 NH올원뱅크

흩어진 내 자산과 소비를
손쉽게 관리하는 **NH마이데이터**

숨어있는 부동산 매매정보부터
조각투자까지 **부동산관리**

경제, 투자 등 알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는 **머니레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3-5076(2023.11.23 ~ 2024.10.31)

 NH농협은행

“인간 뇌에 칩 이식 상용화,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인터뷰 임창환 한양대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Neuralink)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한 단 소식이 주목받았다. 인간의 뇌에 이식한 컴퓨터 칩을 통해 말이나 행동을 제어하는 기술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BCI 상용화 연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BCI는 사지마비 환자 치료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일상생활에도 쓰이도록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선 기술 연구와 규제도 논의되고 있다.

본지는 최근 한양대 연구실에서 임창환 한양대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를 만나 현재 BCI 연구수준과 개발 현황, 상용화 등 BCI의 발전 가능성을 짚어봤다.

BCI는 뇌파를 이용, 외부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 연결하는 기술이다. 장애 등으로 신체 사용이 불가능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BCI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BCI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약 50년 전이다.

임창환 교수는 “BCI는 1973년, 당시 컴퓨터 공학자와 뇌과학자에 의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일반인들엔 생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구 그룹도 많고 활성화된 분야”라고 소개했다.

50년 전 치료목적 BCI개념 등장
안전 우려 美·中·佛만 임상 허용
국내선 뇌전증 수술 제한적 활용
“부작용 있지만 기술 혜택 더 커”
식약처 등서 임상 법제화 논의”

BCI는 침습형과 비침습형으로 나뉜다. 침습형은 두개골을 열고 뇌에 전극을 넣어 뇌파를 읽고 분석해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정확도는 높지만, 위험성으로 인해 임상이 제한적이다. 현재 BCI 인체 임상이 허용된 나라는 미국·중국·프랑스 정도다. 비침습형은 머리 밖에서 뇌파를 측정 뇌의 신호를 읽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활용된다.

국내외 BCI 연구는 활발하다. 침습형은 뉴럴링크 외에 싱크론, 프리시전 뉴로바이언스, 클린타크, 블랙락 노로테크 등 다수 기업이 연구 중이다. 싱크론은 뉴럴링크보다 2년 먼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고 인체 임상을 하고 있다.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 스텐트를 대뇌까지 밀어 올려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한다. 벤자민 라포포트 박사가 설립한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는 휘어지는 전극을 뇌에 올리는 방식의 BCI를 연구한다.



임창환 한양대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는 “FDA는 임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을 때 승인하는데 BCI도 마찬가지다. 위험과 부작용이 있지만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말했다.

비침습형은 주로 숙면과 심신 안정을 지원하는 기기다. LG전자 브리즈와 현대모비스 엠브레인이 대표적이다. 브리즈는 실시간으로 사용자 뇌파를 측정해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을 돕는다. 엠브레인은 운전자의 뇌파를 분석해 피곤·졸음 등을 방지한다.

BCI에 대한 큰 우려는 안전성이다. 임 교수는 “인간의 머리에 기기를 이식하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파킨슨병이

나 뇌전증 치료에도 삽입한다. 위험과 부작용이 있지만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FDA가)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90년대 파킨슨병과 뇌전증 환자 증상 완화를 위해 뇌 심부에 바늘을 꽂아 전기자극으로 치료하는 ‘뇌심부자극술’이 개발됐다. 뇌전증 환자가 발작하기 전 뇌파로 예측하고, 뇌전증이 시작되는 부위에 전기자극을 쬐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임 교수는 “두개골과 뇌 사이에 뇌척수액이 있는데 그 안에는 면역세포가 없어 면역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뇌에 여러 전극이나 기기를 삽입하는데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지 않다”고 했다.

국내에선 BCI 연구와 함께 법제화 논의도 시작됐다. 침습형 BCI는 뇌전증 환자 수술 시 제한적으로 수행된다. 뇌전증 환자의 수술 전 수술 부위 결정을 위해 전극을 1~2주간 삽입하는데, 그 기간 BCI 실험을 한다. 국내에서 유일한 사람 대상의 실험이다. 임 교수는 “국내서 BCI 임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을 만들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상용화되더라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으로 본다. 그는 “침습형은 일반인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시작됐고, 임상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적 부작용에 대해 임 교수는 “머리에 칩을 이식해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향상되면 사회의 공정성이 사라진다. 나는 넣고 싶지 않아도 BCI를 한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넣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인도네시아 진출 K제약·바이오

※출처: 각 사

회사	진출 내용	시기	
대웅제약	대웅바이오로직스(현지법인) 대웅인피온(합작법인)	줄기세포 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공장 구축	2024년 2015년
GC녹십자	직접진출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	2023년
유영제약	직접진출	골관절염 주사제 ‘레시노원’ 수출	2024년
동이에스티	직접진출	바이오의약품 공장 가동	2018년
종근당	CKD-OTTO(합작법인)	바이오의약품 공장 가동	2015년
SK플라즈마	조인트벤처(JV) 설립 예정	혈액제제 공장 건설(2025년 완공)	2023년

<2026년 예상치>

18兆 잠재시장... 印尼로 향한 K-제약·바이오

2050년 세계 4대 경제대국 전망 임상비용 저렴하고 성장 가능성 커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공약에 나서는 K-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늘고 있다. 현지 의약품 시장은 매년 성장해 2026년 18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한 나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현지법인 대웅바이오로직스 인도네시아(DBI)가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줄기세포 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재생의료 사업의 핵심인 줄기세포를 현지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DBI를 통해 현지 병·의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줄기세포 생산·처리 공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필요기관에 제공하고, △재생치료료 △세포치료제 △바이오 소재 에스테틱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 진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줄기세포

포 처리시설 허가를 획득한 만큼 바이오 재생의료는 물론 난치성질환 치료제 연구개발과 사업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뒀다. 현지 정부 및 산업 관계자와 동반 성장을 이어왔고, 현지 제약사 ‘인피온’과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을 설립, 인도네시아 최초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구축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식을 열었다. 플랜트 건설 사업권을 획득한 지 약 6개월 만의 성과다. 신규 공장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35km 떨어진 자바베가 산업단지 내 대지 면적 4만㎡에 세워진다. 연간 최대 40만 리터(L)의 원료 혈장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27년 가동이 목표다. 인도네시아는 혈액제제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직접 진출 사례도 있다. 유영제약은 최근 히알루론산 골관절염 주사제 ‘레시노원’을 현지에서 수출했다. 레시노원은 6개월에 1회 투여하는 지속성과 주

입시 통증을 감소시키는 특징의 의약품이다. 회사는 현지 마케팅 활동으로 매출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이에스티는 2018년 인도네시아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완공해 가동 중이다. 종근당은 2015년 현지 제약사 오토사와 합작법인 ‘CKD-OTTO’를 설립해, 현지 최초 할랄인증 항암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플라즈마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에 연간 100만 리터(L)의 혈장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혈액제제 공장을 건설한다.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사업권·생산·판매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에 힘을 주는 건 선진국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임상개발에 드는 비용이 적어서다. 또 인도네시아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7위까지 상승했다. 골드만삭스는 인도네시아가 2050년 중국, 미국, 인도와 함께 세계 4대 경제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유사 장기로 항암 검증 환자 맞춤 약물 찾는다

넥스트엔바이오-분당서울대병원
췌장암 환자 대상 효능 입증 임상
“새로운 치료법 될 수 있을지 모색”

한국콜마홀딩스 자회사 넥스트엔바이오가 자체 개발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 암환자에게 잘 맞는 치료 약물을 선정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계획 중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엔바이오는 김재환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과 췌장암 환자 대상의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약물 선정 플랫폼의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오가노이드는 인체에서 직접 추출한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유사 장기다.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만, 연구 단계에서만 쓰일 뿐 실제 환자 대상 연구는 제한적이다. 김 교수는 “오가노이드가 임상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아직 근거는 부족하지만, 환자 조직으로 오가노이드를 제작해 약물반응 테스트를 해보고자 한다. 환자별로 잘 맞는 약물이 다를 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상은 췌장암 치료제를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에서 먼저 검사한 뒤, 그중 각 환자에서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를 환자에게 치료해 효과를 살피는 것이다. 넥스트엔바이오는 환자의 암 조직 세포에서 극소량의 세포를 채취

해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김 교수팀이 이를 활용해 항암제별 민감도를 확인한다.

현재 목표 암종은 췌장암으로 환자 모집이 쉽지는 않다. 김 교수는 “췌장암 환자는 국내에서 1년에 약 8000명 정도 발생한다. 예후가 좋지 않은 췌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생물공학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색할 것”이라며 “의미 있는 결과를 찾는다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으로, 초기엔 10~20명의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우선 과제다. 다만, 아직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암 조직도 사람마다 진행속도가 달라, 오가노이드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도 다르다. 김 교수는 “3주 이내에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1주 안에 약물투여 결과를 도출해 환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도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오가노이드 임상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시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가노이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세포 실험보다 실제 환자와 훨씬 더 비슷한 특징이 있어서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는 2019년 7800억 원에서 2027년 3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

건설업계 리스크 '잔불'...중견사 신용전망 잇따라 하향

이달 들어 한신공영·대보건설 한신평, '부정적'으로 전망 낮춰 부동산신탁사에게까지 '불똥' 자기자본 1위 한토신 등급 내리 이자비용 부담→사업악화 우려 "장부가치만 놓고 하향" 불만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착수 이후 잠잠하던 건설업계에 또 신용등급 하향 경고등이 켜졌다. 이달 들어 신용평가기관의 중견 건설사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잇따르고 있고 부동산신탁사의 신용등급 전망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15일 대보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낮춰 'BBB-(부정적)'로 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영업

정지 8개월 처분이다. 한신평은 조정 이유와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 영업정지 기간 국내 민간 및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수주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본원적인 수주 경쟁력과 시공능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보건설이 전체 건설 매출의 70%를 공공 공사를 통해 올리고 있어 앞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8일 또 다른 중견 건설사인 한신공영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 한신공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은 한 단계 하락한 'BBB-(부정적)'로 조정됐다. 한신평은 "연결기준 순차입금은 지난해 9월 말 7122억 원 규모고,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등 재무지표도 크게 상승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26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양 사업장의 분양실적 부진으로 공사대금 회수시점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존	변동	변동 시기
대보건설	BBB-(안정적)	BBB-(부정적)	2월 15일
한신공영	BBB-(안정적)	BBB-(부정적)	2월 8일
한국토지신탁	A(부정적)	A-(안정적)	2월 6일

※ 출처: 한국신용평가, 중견업계

한신공영 측은 "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인 포항(한신더휴펜타시티)와 아산한신더휴 등 사업지는 분양률이 90%를 넘겼고, 올해 파주운정3지구, 양주 덕계, 평택브레인시티 분양 역시 수도권 우수 입지인 만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업황 불황의 유탄은 신탁사로도 퍼지는 모양새다. 한신평은 자기자본 규모가 업계에서 가장 큰 한국토지신탁 신용등급을 6일 'A-(안정적)'로 한 단계 내렸다. 수주 실적 감소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과 이익창출력 저하를 악재로 꼽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

기고, 신탁사는 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업황이 악화하자 신탁사까지 불똥을 맞아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신용등급 하락 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신용등급 악화는 곧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신용평가사나 증권사 등 금융업계는 분양중인 사업장의 분양률이나 사업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부가치와 현 상황만 놓고 신용등급 하향 결정을 내린다"며 "회사 신용도에 부정적 기류 형성되면 실제 PF

진행 때 자금 줄 역할을 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도 부정적으로 태도를 바꿔 금리를 더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레저사업 부문을 조선호텔앤리조트에 매각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매각 대금만 1800억 원에 달해 유동성 확보 효과가 크다. 롯데건설은 금융사와 롯데 그룹사가 펀드 조성에 참여해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다만, 금융권은 건설업계 업황 개선에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5일 채권 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업종별 등급 방향성을 가늠해보면, 건설과 PF 관련 업종의 등급 하향 조정이 상당 폭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하나증권은 14일 건설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관망' 의견을 내놨다. 미분양 증가 우려가 커지는 등 부동산 수요가 둔화하면서 업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다. 정용욱 기자 dragon@

'초폼아' 넘어 '초·중·고' 모두 품은 아파트 시세도 청약경쟁률도 '눈에 띄네'

초등학교를 품은 이른바 '초폼아'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인기몰이를 해왔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더욱 높아지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가까운 단지들이 더욱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에서 초·중·고교가 모두 가까운 단지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같은 지역이라도 초·중·고교 인접 여부에 따라 아파트값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일례로 경기 위례신도시 위치한 '위례호반써밋(2021년 입주)'은 반경 500m 이내 위례초등학교, 위례중학교, 덕수고등학교 등 초·중·고교가 모두 인접해 있는 단지로 지난해 전용면적 101㎡가 최고 13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가깝고, 고등학교는 1km 이상 떨어져 있는 '위례포레자이(2021년 입주)'는 전용 101㎡ 기준 최고 12억7000만 원에 거래되며, 위례호반써밋과 8000만 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같은 학암동에 들어서 있지만, 초·중·고교가 모두 인접해 있는 단지가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투시도. 사진제공 일산건설

위례호반써밋·위례포레자이 고교 인접 여부에 8000만원 차 지난해 청약경쟁률 전국 1·2위 초·중·고 모두 인접단지 공통점

분양시장에서도 초·중·고 인접 단지들은 세 자릿 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71.6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파주 '운정3제 일풍경제'는 초등학교 예정 부지와 교하중학교, 교하고등학교가 모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46.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화성 '동탄레이크파크자연앤e편한세상'도 이슬초, 서연중, 서연고를 모두 품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교육열이 높

은 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 주 수요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 내 집값은 물론 분양시장에서까지 초·중·고교를 모두 품은 단지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이 대기 수요로 뒷받침하고 있다 보니 시장 침체기에도 가격 하락이 비교적 적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 중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이 있다. 일산건설은 이달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일원에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은행초, 풍동초, 세원고, 풍동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수도권 3대 국제고등학교인 고양국제고도 근 거리에 위치해 있다.

상반기 내 삼성물산이 분양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계성초, 반포초,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중, 세화고 등이 모여 있는 입지에 공급된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GS건설과 한화건설부문, HDC현대산업개발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으로 경양초, 운암초, 운암중, 금호중앙중, 금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돼 있다.

한진리 기자 truth@

"조합·시공사 갈등 해소"... SH, 공사비 검증한다

재건축·재개발 1곳씩 시범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재 및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른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각 1곳씩을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비 검증기관으로서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전,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각 자치구가 서울시에 신청한 현장 중 △재건축(신반포22차 아파트) △재개발(행당제7구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SH공사는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정비 사업 시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정비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전면 시행한다.

SH공사는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재건축, 답십리 제17구역 재개발 등의 공공 시행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검토해 주민-시공사 간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해왔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다수의 정비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공사비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하다. 이번 공사비 검증 사업 본격 시행을 통해 관련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SH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진리 기자 truth@

금주의 분양캘린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3072가구(일반분양 2961가구)가 분양한다. 상대적으로 분양이 적은 설 연휴에 비해 분양이 증가한 모습이다.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461가구만 분양했다.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총 8곳이다. 서울 강동구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과 서울 서대문구 '경희공유보라', 경기 고양시 '휴먼빌일산클래스원', 인천 서구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 등은 23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2/20 (화)	접수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TH212 1순위	
			수원시	영통동	영통자이센트럴파크 1순위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롯데캐슬넥스티엘 I·II·III
			광주	북구	삼각동	위파크일곡공원 1순위
2/21 (수)	접수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TH212 2순위	
			수원시	영통동	영통자이센트럴파크 2순위	
			광주	북구	삼각동	위파크일곡공원 2순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2/23 (금)	오픈	경기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공유보라	
			고양시	식사동	휴먼빌일산클래스원(3BL)	
			평택시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9-2BL)	
			인천	서구	마전동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AA29)
			경남	밀양시	삼문동	삼문시그니처월가
			제주	제주시	건입동	제주중부공원제일풍경채스트럴파크
			충남	천안시	두정동	힐스테이트두정역

(주) *♣=오피스텔(주)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자료: 부동산R114

경기 침체에...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60% 줄어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가 급감했다. 반대로 주택 사업을 포기하는 기존 업체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427건으로 전년 1086건보다 60% 이상 줄었다. 2021년 2191건에서 절반 정도로 축소된 뒤 다시 한번 급감하면서 글로벌 금

융위기 당시인 2009년 363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반대로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납납 건수는 843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5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납납 건수는 2020년 484건에서 2021년 629건, 2022년 765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자진납납과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 말소를 합한 건수는 1089건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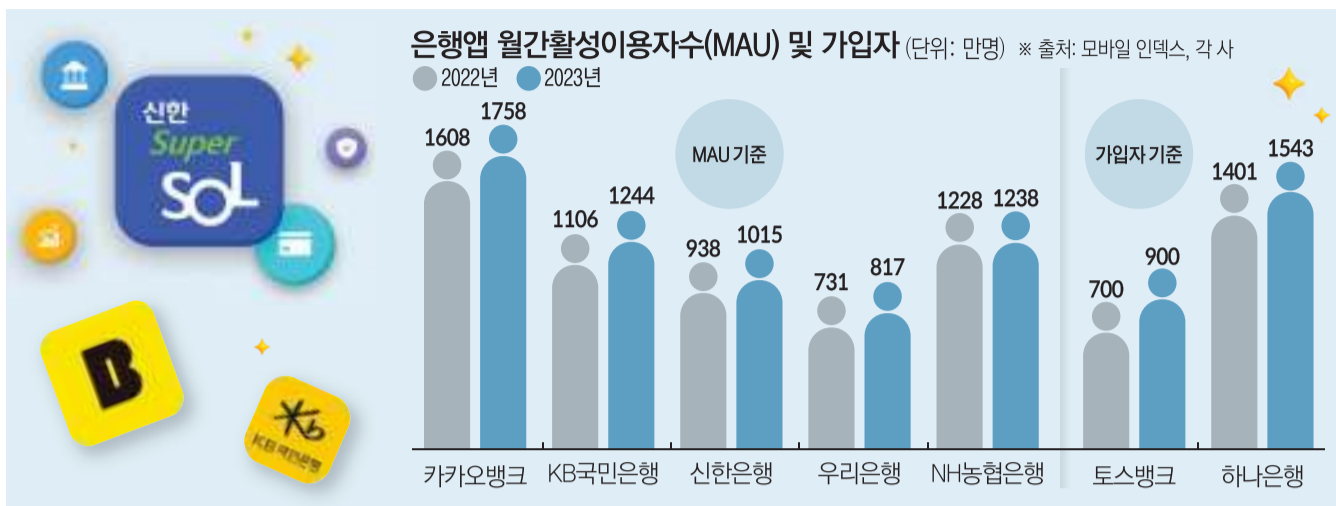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2022년 1만49개사에서 지난해 9390개사로 659곳이 감소했다. 주택건설업 등록업체 수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은 38건이었고 자진납납(167건)·등록말소(3건)는 이보다 132건 많은 170건으로 집계됐다. 전보규 기자 jbk@

<월간활성이용자수>

금융지주 '슈퍼앱' 패권은 누가... MAU 선점 '각축'

서비스 통합 '원 앱' 본격 경쟁

'KB스타뱅킹' MAU 선두 유지
신한 '슈퍼솔' 서비스 강화 노력
우리금융 '뉴 윈' 11월 출시 준비
농협, 내년 'NH올원뱅크' 탈바꿈
'앱테크' 혜택 인뱅 월사용자 급증



금융권의 '슈퍼 애플리케이션(앱)'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금융서비스를 한데 모은 슈퍼 앱은 지난해 신한금융에 이어 올해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이 출시를 계획 중이다. 얼마나 편리하고 사용자 친화적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슈퍼 앱 경쟁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농협금융은 올해 중 슈퍼앱을 선보일 예정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각각 'KB스타뱅킹', '슈퍼솔(SOL)'을 운영 중이다. 하나금융은 '하나원큐'를 통해 카드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생명·손해보험 등 하나금융 계열사의 주요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슈퍼앱은 그룹의 핵심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과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원 앱(One-App)'으로 묶어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한다. 고객 점점 확대는 물론 기존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11월을 목표로 슈퍼앱 '뉴 윈' 출시를 준비 중이다. 뉴 윈 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은 지난해 말 기준 817만 명의 MAU를 기록했다.

육일진 우리금융 최고디지털책임자(CDO)는 "은행 앱을 기반으로 하되 다른

계열사의 주요 서비스가 고객 관점에서 유니버설 뱅킹으로 엮여지는 부분에 주안을 두고 있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AI뱅크, 마이데이터를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 등을 최신 기술로 반영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금융은 내년 1월을 목표로 'NH올원뱅크'를 슈퍼앱으로 탈바꿈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현재 농협은행 앱 'NH스마트뱅킹'과 NH올원뱅크를 운영해 MAU 집계도 분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MAU는 NH스마트뱅킹은 837만 명, NH올원뱅크는 401만 명이다. 두 앱의 MAU는 1238만 명에 달한다. 농협

금융은 6월부터는 계열사 전 상품을 NH올원뱅크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슈퍼솔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 신한금융은 신한 슈퍼솔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로그인 및 메인화면 이용 시 속도 개선, 고객 피싱 방지 서비스 강화 등 고객들의 다양한 요청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 앱인 '솔뱅크'의 MAU는 지난해 말 기준 101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38만 명)보다 8.2% 증가한 수치다. 국내 은행권에서 출시한 모바일

뱅킹 앱 중에서 1000만 MAU를 달성한 곳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뿐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스타뱅킹의 MAU는 1244만 명으로 은행권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1106만 명)보다 12.47% 확대된 수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뱅킹은 현재 KB금융 계열사 70여 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권 대표 슈퍼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KB스타뱅킹을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인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MAU를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MAU는 1758만 명으로 전년(1608만 명) 대비 9.3% 늘었다. 토스뱅크의 가입자 수 또한 지난해 말 17일 900만 명을 돌파했다.

인터넷은행들은 매일 미션을 수행해야 혜택을 주는 앱테크 기능을 통해 MAU를 확보하고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26주 적금, 모임통장부터 최근 '갯생챌린지' 등 매일 앱 접속을 할 수 있는 요인을 통해 적립했고 토스뱅크는 '매일 이자받기' 등 고객들의 앱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는 요소들을 마련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기후동행카드 열풍에... 카드사 후불제 속속 도입하나

오세훈 "4월 신용카드 충전 강구"
신한카드도 4월 신용·체크서비스
타 카드사도 하반기 후불제 도입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 출처: 서울시

지원방식	무제한 정기권
최소이용횟수	없음
사용범위	서울 시내
시범운영	2024년 1~5월(하반기 시행 목표)
사용방법	모바일 앱 구입 및 충전·실물카드 동시 판매 예정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누적 37만 장에 이르면 서카드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체크·신용카드의 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를 탑재하게 될 경우 고객 유인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출시 첫 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36만 8000장이 판매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월 6만 원대에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 버스, 파릉이 등 각종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후동행카드는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카드 또는 페이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원이 잇따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카드 출시 이틀만인 지난달 29일 시청역을 찾아 카드를 구매하고 충전한 뒤 "4월 중 신용카드도 충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나아가 신용카드

후불제 시스템도 도입해서 점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카드사들은 서울시와 함께 기후동행카드 사업 협력 강화에 나섰다. 카드업계는 기후동행카드 열풍에 힘입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교통카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매일 들고 다니는 카드인 만큼 고객을 끌어들이는 락인효과를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를 탑재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파생 상품을 선보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4월부터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체크카드로 요금을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타카드사들도 속속 해당 서비스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 사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 후불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56%는 20·30세대 청년층이다. 3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20대(27%), 50대(19%), 40대(17%) 순이었다. 실물카드 초기 준비물량(20만 장) 약 97%는 판매가 종료되는 등 품귀현상을 겪기도 했다. 정성원 기자 jsw@



임종홍(왼쪽) 우리금융 회장과 윤석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5일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수자원공사 물산업 中 支援 협력

우리금융그룹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양사는 15일 우리금융 본사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지원을 비롯한 4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K-water 협력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해 협력기업에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특히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해외사업 진출 지원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금융 외 분야 지원도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우리금융과 K-water는 △탄소 중립 이행과 ESG 경영실천 △해외 사업 △자금지달 및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한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사는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화해 금융과 물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홍 우리금융 회장은 "양사의 핵심이 중소기업 성장과 물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해외부동산 쇼크' 현실로... 5대 금융그룹 투자실패로 1조 날렸다

펀드 제외한 투자 782건 20조 넘어
자산 평가가치 수익률은 -10.53%
금감원, 금융사 집중 모니터링 돌입

5대 금융그룹이 해외부동산 투자로 최소 1조 원이 넘는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금융그룹이 해외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것이다.

18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국내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총 782건으로 집계됐다.

고객에게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와는 별개로 금융그룹들이 자체 집행한 투자다. 전체 원금은 20조 3868억 원에 달했다.

투자 원금 규모는 하나금융이 6조 245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KB금융이 5조 6533억 원, 신한금융이 3조 9990억 원, 농협금융이 2조 3496억 원, 우리금융은 2조 139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대출채권을 제외하고 수익 증권과 펀드 등 512건의 투자에 원금 10조 4446억 원을 투입했다.

대출채권의 투자 금액은 KB금융이 2

조 8039억 원(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 2조 7797억 원(133건), 하나금융 2조 6161억 원(157건), 농협금융 1조 8144억 원(55건), 우리금융 4305억 원(41건) 순서로 집계됐다.

이 자산들의 평가 가치는 총 9조 3444억 원으로, 애초 투입한 원금 10조 4446억 원보다 1조 1002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전체 평가 수익률은 -10.53%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하나금융, KB금융, 농협금융의 투자원금 대비 평가가치가 각각 -12.22%, -11.07%, -10.73%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7.9%, 우리금융은 -4.95%였다.

개별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인내부수익률(IRR)은 산출 가능한 투자 514건 중 약 10%에 달하는 51건이 마이너스였다.

이는 금융그룹 실적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대 금융그룹을 비롯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삼성증권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손실 인식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역대 가장 빠른 가격 하락 속도를 보이기에 올해 부실 현실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하영 기자 haha@

경기부진 속 투자확대... 23학번 새내기주 실적 '낙제점'

IPO 기업 78% 영업이익 하락

지난해 국내 증시에 상장해 실적을 발표한 기업 10곳 중 8곳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곳으로 나타났다.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업황 악화, 연구·개발(R&D) 확대와 인력 충원에 따라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황은 더 암울하다.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하향조정됐다.

◇업황 저조·R&D·인력 증원... 지난해 신규 상장 기업 대부분 실적 저하 =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리츠·스팩 제외) 82곳 중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16일 기준 51곳이다. 이 중 40곳(78%)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12곳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은 대부분 실적 감소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타격이 크게 작용했다.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는 최근 지난해 매출액 225억 원, 영업손실 568억 원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파두는 "낸드 업황 악화와 고객사 수요 하락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연구인력

반도체·이차전지 업황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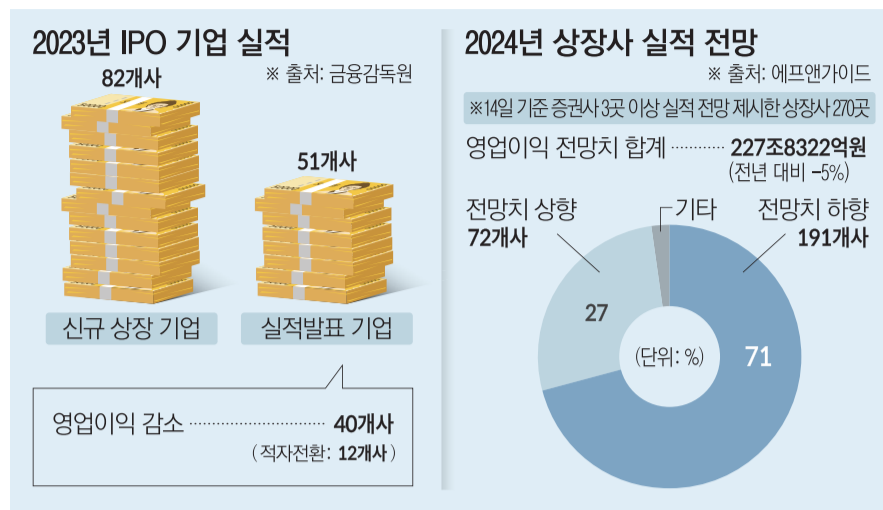
사업 확장하며 적자폭 늘어 일부는 IPO 실적목표 못미쳐 올 상장사 71% 전망치 하향

증가 및 신제품 개발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반도체 설계기업 자람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7%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통신 및 반도체 전방산업 칩체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선통신 반도체 기업 쏘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8% 감소했고,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 에이엘티 역시 39% 줄었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도 마찬가지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지난해 매출액이 43.2%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77.5% 급감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전구체 판매량 증가에 따라 매출이 증가했다"면서도 "원재료 메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필에너지 역시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9% 줄었다. 이차전지 고객사 라인 투자 증가에 따라



매출은 확대됐으나 신규장비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등에 따른 비용이 늘었다는 것이 필에너지 측 설명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환사채 파생상품 평가손실에 따라 적자전환했다.

콘텐츠 기업도 고전했다. 웹툰 제작사 와이랩은 지난해 영업손실 48억 원을 기록해 2022년 영업손실 4억 원 대비 적자폭을 늘렸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 96억 원 감소한 2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와이랩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영상 콘텐츠 제작 일정과 웹툰 연재 일정 연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스튜디오미르 역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8%

, 73.2% 줄었다. 일부 기업은 IPO 추진 당시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치에 못 미친 실적을 거뒀다. 컨택 역시 사업확장 비용 증가로 적자가 확대됐다.

◇올해 상장사 71%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올해도 상장사들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4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제시한 상장사 270개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총합은 227조8322억 원으로 지난해 말

(239조3570억 원) 대비 11조5248억 원(4.8%) 감소했다.

71%에 해당하는 191개사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들어 하향 조정됐다. 27%에 해당하는 72개 기업의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32조1038억 원으로 지난해 말(33조8109억 원) 대비 5% 하향 조정됐다.

이차전지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말 대비 43% 낮아지며 이차전지 기업 가운데 하향 폭이 가장 컸다. 이어 포스코퓨처엠(-36%), LG화학(-35%), LG에너지솔루션(-3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최근 주가 상승세가 컸던 저PBR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도 대부분 낮아졌다. 현대차(-2%), 기아(-3%)를 비롯해 KB금융(-2%), 신한지주(-3%) 등 자동차, 금융지주 실적 눈높이가 하향조정됐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5일 기준 코스피 확정 PBR은 0.95배로 지난해 상반기 고점인 1.0배에 근접한 가운데 PBR 1배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 개선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돌아온 '바이 코리아'... 외국인, 코스피200서 한 달간 7兆 싹쓸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 달째 코스피200 종목을 싹쓸이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개선되면 대형주 위주로 수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9

거래일 연속 코스피200을 사들이고 있다. 이 기간 외국인들은 코스피200을 7조 3981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1년 전(4조 1814억 원)과 비교해 약 77%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이 19거래일 연속 코스피200을 순매수한 것은 2022년 9월 29일~10월 27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외국인은 지난 15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93억 원, 868억 원어치를 순매도할 때도 코스피200 종목은 363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0위에는 카카오(762억 원)를 필두로 POSCO홀딩스(223억 원), 에코프로머티(126억 원), LG에너지솔루션(122억 원) 등 이차전지주들이 담겼다.

이달 2일 외국인의 전체 코스피 순매수

액(1조9344억 원) 중 코스피200 비중은 95.2%(1조8420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이 19일까지 코스피200을 20거래일 연속 순매수할 경우 2009년(7월 15일~8월 11일) 이후 15년 만의 최장 기록이 된다.

외국인들은 코스피200에서도 저PBR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외국인 은 현대차만 1조5277억 원어치 사들였

다. 이어 삼성전자(1조795억 원), SK하이닉스(5903억 원), 기아(5387억 원), 삼성물산(4967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3687억 원) 등을 순매수했다. 금융지주 종목도 사들였다. 순매수 상위 7위와 8위에는 KB금융(2902억 원)과 하나금융지주(2344억 원)가 이름을 올렸다.

정희인 기자 hihello@

'밸류업' 기대감에 저PBR 대형주 집중매수해 현대차 최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아順

www.amaranth10.com | 대표번호 1688-5000

DOUZONE

Convergence

Cloud

AI

Share

Groupware

Accounting

Big Data

Connect

CMS

ERP

CRM

비즈니스의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의 탄생 -

Amaranth 10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회계관리 | HR | Groupware(UC) | 임직원 업무관리 | CRM | 웹오피스(문서 관리)

강신호, 4년 만에 친정 복귀... CJ제일제당 구원투수로

이재현 민을맨... 리더십 능력 탁월
K푸드 확산 등 수익성 회복 집중
매출 부진 실적 해결사 역할 기대

강신호(사진) CJ대한통운 대표가 4년 만에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CJ제일제당의 사령탑으로 복귀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해를 넘긴 장고 끝에 내놓은 인사다. CJ제일제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강 대표가 수익성 회복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2024년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CJ제일제당·CJ대한통운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고 임원 총 19명을 승진시켰다. 통상 매년 11~12월 진행됐던 CJ그룹의 임원 인사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겼다.

그만큼 이 회장이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 전략의 새 판을 짜고 책임자를 찾는데 장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선택은 '쇄신' 대신 '안정'이었다. 우선 핵심 계열사인 CJ제일제당 수장 자리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불러들였다. 1961년생인 강 대표는 1988년 그룹 공채로 입사한 'CJ맨'이다. CJ그룹 인사팀장,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 대표 등을 거쳤다. 2021년 CJ대한통운 대표를 역임하기 전까지는 CJ제일제당 대표를 지냈다. 강 대표는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

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CJ그룹에서 공채 출신이 부회장으로 승진한 것은 강 대표가 최초다.

이 회장은 강 대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에 오른 강 대표는 1년 만에 영업이익을 3배 증가시켰고 140억 원에 달했던 손실을 흑자로 돌려놨다. 강 대표가 2020년 말부터 이끌어온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매출 11조8000억 원, 영업이익 4800억 원이라는 최대 실적을 냈다.

4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강 대표는 CJ제일제당의 구원투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CJ제일제당은 지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17조8904억 원, 8195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7%, 35.4% 감소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식품 사업이 성장을 이어갔지만, 바이오·사료·축산사업의 부진이 전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 탓이다.

강 대표는 취임 이후 그간 그룹 전반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K푸드 확산에도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 대표는 2018년 식품사업부 대표로 CJ제일제당에 복귀한 후 '비비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CJ제일제당의 미국 식품사업 중추인 냉동식품기업 슈완스인수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강 대표의 후임 바통은 신영수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 대표가 승진해 이어받는다. 정성필 CJ프레시웨이 대표와 이진

정 CJ올리브영 대표, 김찬호 CJ푸드빌 대표, 구창근 CJ ENM 대표, 허민회 CJ CGV 대표는 자리를 지켰다.

한편 CJ그룹은 이번 임원인사에서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신임 경영리더에 19명이 이름을 새로 올렸다. 2020년 이후 최소폭이다. 올 1월 이재현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성과를 격려한 CJ대한통운과 CJ올리브영에서 각각 6명, 4명이 나왔다.

반면 실적이 부진했던 CJ제일제당에서는 임원 승진자가 3명에 그쳤다. CJ는 이번 인사에서도 '하고잡이' 젊은 인재들을 리더로 과감하게 발탁했다. 1980년대생 6명, 1990년생 1명을 포함해, 나이나 연차에 관계없이 성과만 있다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CJ그룹의 철학을 반영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만나서 너무 '조구만' 롯데백화점은 3월 14일까지 인천점 지하 1층에서 초록 공룡 캐릭터 '조구만'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구만은 '작고 하찮지만 중요한 존재들이 주는 위로와 행복'이란 메시지로 MZ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는 캐릭터 브랜드다. 이번 팝업 행사에선 쿠션, 노트북 파우치, 문구류 등 총 240종의 굿즈를 선보인다. 최대 10만 원 상당의 상품들이 담긴 럭키 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며 8~15만 원 이상 구매 시 오프포인트 5%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 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총선 앞두고 '가맹법 개정안' 통과
원가공개 영업비밀 침해 등 역효과
편파적 법안 우려에 실효성 논란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맹본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자,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개정안 발의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국회 정부위원회는 같은 달 가맹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실상 가맹점주를 노조로 인정하는 법안으로, 본사가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각종 법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총선을 앞두고 난표심잡기용 법안일 수 있어, 현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한 대기업 베이커리 브랜드 출점 규제가 대표 사례다. 이 규제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면서 이미 자리를 잡은 SPC '파리바게뜨'가 독주하는 결과를 냈다. 이후 신규 매장 출점이 사실상 제한된 업계 2위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다. 3위 '크라운베이커리'는 사업을 아예 접었다. 해외 브랜드와의 역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가맹사업

운영권을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경우 규제망을 피할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국내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해외로 본사를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품목 관련 법안의 경우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데, 이는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원가를 공개해도 가맹본사가 거 뒤들이는 마진이 적당하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세계와 비교해도 규제가 많은 편"이라며 "가맹본사는 갑질을 하는 곳, 가맹점은 당하는 곳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시장을 보니 편파적인 법안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은 협력해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권도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MZ 반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선점 경쟁 뜨겁네

업계, 한정판 협업 제품 출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
첫날 오픈런·완판 행렬 인기

패션업체들이 특별함과 독특함을 추구하는 MZ세대가 특히 선호하는 '스트리트 패션'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정판 협업 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넓히는 등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하다. 합합, 스케이트보드 등 서브컬처에서 시작된 스트리트 패션은 각자의 개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의 자회사 무신사트레이딩이 전개하는 글로벌 스트리트 브랜드 '노아(Noah)'가 국내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19일 오픈한다. 노아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 뉴욕에서 탄생한 노아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한국에 진출했다. 작년 11월 서울 압구정에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 '노아 시티하우스'를 연 데 이어 온라인몰까지 열며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LF가 전개하는 '챔피언'도 지난달 27일 일본 스트리트 브랜드 '더블템

스'와 협업 컬렉션을 내놨다. 챔피언 롯데월드몰점에서 한정판매인이 컬렉션 제품은 수십 명이 오픈런을 하는 등 개점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챔피언의 편안하면서도 심플한 현대적 캐주얼 스타일에 더블템스의 유니크한 요소를 적절히 조합한 디자인이 인기를 끌며 출시 10일 만에 완판됐다. 챔피언과 협업한 더블템스는 테츠 니시야마가 1996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한 스트리트 브랜드로, 패션 마니아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하다.

패션업체들이 스트리트 패션 공략에 힘을 주는 것은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관련 있다. 유명 스트리트 브랜드 제품의 경우 통상 일반 의류 브랜드들보다 높은 가격에 팔거나, 한정판으로 출시해 구매도 쉽지 않다. 그러나 희소성 있는 의류를 선호하는 MZ세대에게 오픈런으로 상품을 구하거나 웃돈을 주고 리셀(Resell)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글로벌 스트리트 브랜드들도 국내에 매장을 잇달아 열면서 향후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영국 하이엔드 스트리트 브랜드 '팔라스'는 이달 초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에 국내 1호점을 열었다.

문현호 기자 m2h@

"책상·노트북 저렴하게 만나요"

이마트, 신학기 맞이 할인 행사

이마트가 3월 개학을 앞두고, 신학기 준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학생용 가구는 최대 50% 할인하고, 노트북 등 디지털 가전도 혜택에 포함된다.

이마트는 3월 14일까지 '데코라인 밀키·피코·라떼·하버드 책상 세트' 4종을 5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밀키·피코 책상 세트는 8만9500원, 라떼 책상 세트는 10만9500원, 하버드 책상 세트는 13만

9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라떼 책상 세트와 공간박스(2단/3단/4단)를 함께 구매한 세트도 50% 할인에 선보인다. 가구 합산 20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마트는 삼성과 LG 인기 노트북 행사도 29일까지 진행한다. LG 인기 노트북 '그램 16'은 행사카드 구매 시 최대 75만 원 할인에 구매할 수 있으며, 삼성 '갤럭시북4 프로'는 최대 10만 원 할인과 함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다.

유승호 기자 peter@

위증사범 작년 586명 기소... 檢 “사법질서 방해 엄단”

검찰, 622명 적발

검찰이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을 적발해 이 중 586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위증사범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도록 만들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지칭한다.

대검찰청이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2021년 372명에서 2022년 495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622명으로 전

금전대가 등 결부... 입건 26% ↑ 범행 은폐 시도 차단·공소 유지 형사재판에서 무죄율 소폭 줄여

년 대비 25.7% 증가했다. 위증 구속 인원은 2022년 9명에서 2023년 13명으로 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다시 증가하자,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면서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2022년 0.94%→2023년 0.92%, 2심 무죄율은 같은 기간 1.56%→1.38%로 감소했다.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의

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을 소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일 이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흥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탈퇴 조직원에 대한 폭행·감금죄를 숨기려다 무더기로 기소된 ‘원주 멸치파’ 조직원들(원주지청), 여자친구의 강간상해 피해 사건에서 돈을 받고 허위로 증언한 남성(인천지검), 음주운전 후 동승자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운전자(전주지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여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함이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위증 및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길 기자 ekpark@

“타로점서 무죄”... 미신 맹신하는 의뢰인들

서조동 MSG

소송은 보통의 의뢰인에게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중대사다. 그래서일까 소송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들은 무속신앙이나 미신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들은 때로 변호사에게 난감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와 사사건건 대립하던 의뢰인이 있었다. 변호사입에서 “사임하겠다”, “다른 변호사를 추천해주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부딪혔지만 의뢰인은 한사코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재판에서 또다시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검찰의 항소도 없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이 소회를 털어놓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시절, 우연히 타로점 카페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타로술사로부터 “지금의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 덕분에(?) 의뢰인은 긴 재판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웃지 못할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실제 미신은 구치소·교도소에서도 영향



변호사와 사사건건 대립 의뢰인 타로점 믿고 맡겨... 무죄 판결?

‘하늘색 수의 입으면 석방’ 미신 출소자 입은 수의 두고 쟁탈전도

학폭 가해자, 점괘 믿고 ‘무혐의’ 뻔뻔한 모습에 피소... 결국 구속

력이 상당하다.

구속된 미결수가 입은 수의 중 카키색은 기본 지급되고 하늘색은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는 하늘색 수의를 입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확률이 높다는 미신이 있다고 한다. 특히 이미 출소한 이들 또는 출소가 예정된 수용자의 수의는 ‘밖으로 나가게 하는 상서로운 기운’이 깃들여 있다며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미신에 기별 수는 있어도 맹신해선 안된다.

이수진 기자 abc123@

한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신년운세에서 ‘관재수도 큰일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점괘와 달리 자녀는 학교 폭력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회부됐다. 그럼에도 이 의뢰인은 점괘를 믿으며 무혐의를 확인했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뻔뻔한 모습에 피해자 측은 분노했고 결국 사건은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재판을 앞두고 방문한 여러 점집에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든 석방된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그를 구속시켰다.

실제로 무속인이나 역술인들은 의뢰인들을 현혹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뢰인들도 힘들 때는 그들에게 의지하면서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억하심정으로 뒤늦게 ‘사기방조’ 혐의 소송 제기도 불사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중요한 선고를 앞둔 의뢰인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점괘에 기대 위안을 얻고 싶을 수 있다”면서도 “점괘나 미신을 맹신하며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꽃시장은 벌써 봄 절기상 우수(雨水)를 하루 앞둔 18일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서울 서초구 양재화훼공판장 소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꽃을 구경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우수인 19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추웠다 더웠다... 한동안 ‘넙뛰기 날씨’

기온 10도 오르락내리락 반복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0도가량 오르고 내리길 반복하는 ‘넙뛰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따뜻한 남서풍과 북쪽의 찬바람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영상권과 영하권을 반복하는 날씨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주 14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11도로 1904년 이래 2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바로 다음날엔 다시 눈과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영하권에 접어들기도 했다.

시민들은 전날보다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16일 6호선 석계역에서 만난 이지민(32) 씨는 “어제는 얇은 긴팔을 입었다가

오늘은 또 패딩을 꺼냈다”라며 “하루마다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넙뛰기 날씨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바람이 수시로 바뀌며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 해상 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불어오는 따뜻한 남서풍과 북쪽에서 찬바람이 번갈아 나타나며 순차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했다.

이번 주에도 넙뛰기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시점을 경계로 기온 변화는 커지게 된다”라며 “남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따뜻한 공기의 유입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북쪽 고기압은 찬 공기가 남하하는 영향을 줘서 기온이 떨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배치

사건 접수 시 직접 방문 조사 서울시교육청 내일까지 연수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이 활동 예정인 가운데 188명의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20일 이틀간 성동공업고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조사관에게 요구되는 공통 소양(법령·제

도 등) △학생 및 학부모 면담 기법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 등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선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이다. 연수 후 내달 2일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연수 첫째 날에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및 관계조정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문화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상담 기법 △피·가해측 면담 기법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례회의의 보고 요령 △SPO와의 협력 방법 등을 교육한다.

오는 21~29일에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일 이상의 실습 중심 연수가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원 등으로 강사를 구성, 1:1 맞춤형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연수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현장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사관으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역할에 대해 사명감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oijju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③ 최적화 기술 1위 → 20,684,160 가지 스펙 초격차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안보·경제발전이 국가 미래의 밑바탕... ‘사람’이 가장 중요” 출산장려금 세제까지 움직인 이종근 회장의 지론

부영, 출산 직원에 1억 지급
정부 稅 혜택 위해 전향적 논의
이 회장, 국방·안보·역사 강조
“저출산 지속 땀 국가존립 위기”
고향 주민 등 국내외 나눔의 삶
개인 기부액만 2600억 넘어



이종근(왼쪽)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 생산인구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 회장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 원씩 지원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을 느끼고 정부에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기업 출산지원금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며 화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의 바람대로 세제를 바꾸려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나 직원 중 누군가는 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근

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여로 본다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세금이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는 셈이다.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과 출

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놀랄만한 일이다. 그 중심에 이 회장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 회장은 미래의 토대인 역사 바로 알리기와 호국보훈을 사명으로 삼고 국방·안보와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2013년 우정문고를 설립해 ‘6·25전쟁 1129일’, ‘광복 1775일’ 등 다수의 역사서를 출간했으며

매년 군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공군 하늘사랑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했고 6·25 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용산전쟁기념관에 유엔 참전비 건립비용도 지원했다.

출산장려금 또한 안보와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사람’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이 회장의 이 같은 활동들과 맥을 같이한다.

이 회장의 몸에 밴 ‘나눔의 삶’도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의 배경이다.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액만 2600억 원이 넘는 정도로 거침없는 기부 행보를 해왔다. 지난해는 고향인 전남 순천 서구 운평리마을 주민 28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룹 차원에서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기관에 많게는 수백억 원을 기부했고 해외에서도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에 버스 1800대를 기증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회장이 기부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것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충분한 사회 환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이롭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평소 돈이 사후까지 영원히 함께 가는 게 아니니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보규 기자 jbk@

“트럼프 자산 부풀려 부당이익 취해”
뉴욕주 법원, 벌금 4740억원 부과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돼 뉴욕 법원이 약 3억5490만 달러(약 47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그는 3년간 뉴욕 사업체의 고위직을 맡지 못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와 이 사건의 다른 피고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다”며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는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과 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 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기업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에서 3년간 기업 임원 또는 이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에게도 뉴욕에서 2년간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정치적 표적이 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이 통제하는 엔고론 판사는 이 사건에서 이미 네 번이나 판결을 뒤집은 부끄러운 기록이 있다”며 “판결은 또 다시 뒤집힐 것이다. 우리는 불의를 좌시할 수 없으며 조 바이든의 무기화된 박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전아현 기자 cahyun@

롯데호텔 서울 신지훈 셰프 ‘독일세계요리올림픽’ 금상

배영산 파티시에는 은상 수상

롯데호텔은 롯데호텔 서울의 신지훈(사진) 셰프와 배영산 파티시어가 2024 IKA 독일세계요리올림픽에서 금상과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4년마다 열리는 독일세계요리올림픽은 1900년에 시작된 전통 있는 요리 대회로 세계조리사회연맹(WACS)이 주최

하는 룩셈부르크 세계요리월드컵, FHA 컬리너리챌린지와 함께 세계 3대 요리대회로 꼽힌다. 이번 대회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렸으며 67개국 1800여 명의 요리사가 참가해 기량을 펼쳤다.

신지훈 피에르 가니에르 서울 셰프는 컬리너리아트 개인전에 출전해 디저트를 포함한 5코스 메뉴와 핑거푸드로 금메달

을 목에 걸었다. 주재료의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요리와 비건 메뉴의 색다른 조리법을 선보였다. 특히 코스의 흐름과 플레이팅의 독창성 색깔, 세심한 터치 부분에서도 완벽한 코스라는 호평을 받았다.

배영산 파티시에는 페이스트리아트 개인전에서 세계절을 주제로 한 디저트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제철 과일을 활용하



각 계절의 컬러를 담은 디저트 식재료 간의 조화와 감각적인 플레이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승호 기자 peter@·사진제공 롯데호텔앤리조트

기아 ‘2024 스타 어워즈’...판매 우수직원 203명 시상

전주지점 정태삼 영업이사 판매왕

기아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견인한 판매 우수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아는 16일 제주 서귀포 제주신화월드에서 ‘2024 기아 스타 어워즈’ 행사를 열고 2023년 판매 우수 직원 203명에게 시상했다. 기아 스타 어워즈는 지난해 판매 우수 직원들을 격려하고 올 한 해 좋은 실

적을 거두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는 지난해 468대의 차량을 판매한 전북 전주지점 정태삼 영업이사가 기아 판매왕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 영업이사는 1992년에 입사해 지난해까지 32년 동안 5910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정 영업이사는 최근 10년 동안 기아 판매 상위 10명 명단에 9번 이름을 올렸으며 올해 처음으로 판매 1위를 달성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16일 제주 서귀포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 ‘2024 기아 스타 어워즈’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기아

부음

▲홍인기(전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씨 별세, 한수화 씨 남편상, 홍승희·승연 씨 부친상, 김우경 씨 장인상=1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 20일 오전 5시 25분, 02-3410-6912

▲박영태 씨 별세, 신영국(교육부재외 교육지원담당관실 서기관) 씨 모친상=18일,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2층), 발인 20일, 010-2065-7834

▲서순심 씨 별세, 박제승(전 삼성SDI 부사장)·제형(전 동부대우전자 부사장)·제균(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종아(부역98 대표) 씨 모친상, 손혜숙·이재욱·이효영(전 이투데이 부국장) 씨 시모상=1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0일 오전 10시 30분, 02-3410-6920

▲강희남 씨 별세, 신용철·외숙·용우 씨 모친상,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해갑) 씨 장모상=17일, 경남 김해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55-330-0411

남자계영 800m 銀...한국 수영 ‘황금세대’ 단체전 사상 첫 메달

중국에 0.1초 차 뒤져... ‘금2·은1·동2’로 도하 세계선수권 마감

한국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은메달을 차지했다. 1위 중국과 불과 0.1초 차이였다.

한국대표팀은 1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아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양재훈(25·강원도청),

김우민, 이호준(22·제주시청), 황선우 순으로 레이스를 펼쳐 7분01초94로 2위를 기록했다. 신진제, 왕하오위, 판잔러, 장잔쉬로 이뤄진 중국의 기록(7분01초84)와 불과 0.10초였다. 동메달은 미국(7분02초08)이 차지했다.

한국 수영이 단체전에서 입상한 건 이

번이 처음이다. ‘황금 세대’로 불리는 선수들이 새 역사를 쓴 셈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계영 800m를 포함해 총 5개의 메달을 땀다. 김우민이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정상을 올랐고,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우승했다. 다이빙에선 여자 3m 스프링보드(김수지), 혼성 싱크로 3m 스프링보드(김수지·이재경)로 동메달을 따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1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아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합작한 양재훈, 김우민, 황선우, 이호준(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도하/로이터연합뉴스

전하진 칼럼



SDX재단 이사장

AI시대의 교육 달라져야 한다

없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없다면 인간은 대체 무엇을 하게 될지 예측이 잘 안 된다. 어찌 되었든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치 부모가 한없는 사랑으로 훌륭하게 자식을 성장시키듯 우리도 이제 이런 사랑과 성실함 그리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일을 해 낼 수 있게 해야 된다. 어찌면 이것이 유일하게 남은 우리 인간들의 역할일지 모른다. 그들의 지적능력을 따라잡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그 어머니마한 능력을 지구공동체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리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부모처럼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여전히 갖기 힘든 영성이나 사랑 등을 통해 차별화되는 것 말고 달리 내세울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인간을 초월한 너무나 똑똑한 인공지능이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구적 선을 위해 활용되도록 그들의 윤리적 수준을 한없이 끌어올려야 하는 부모님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다면 모든 생물종과 공존하는 지구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렇게 윤리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그들이 접할 인간들의 집단지성이 어떤 모습이나에 따라 그들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만에 하나 우리 모두가 이런 훌륭한 집단지성으로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면 지금 지구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기후문제나 양극화 문제

지능·근력이 지배하는 시대 지나가 산업시대 틀에 박힌 교육 버리고 솜씨 공유하는 집단지성 키워야

그리고 전쟁 등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관점의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인류가 그런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인류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여전히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학교 교육은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던 교육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처럼 인간도 제한된 기능을 갖도록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우수 제품과 열등 제품으로 구분하면서 말이다. 매년 한 달 한시에 전국 고3학년 학생들에게 일제히 수능 시험을 치러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이벤트가 지금도 계속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인간의 지능이나 근력이 필요한 세상은 끝났다. 아무리 가르쳐도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없다. 불필요한 교육에 시간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영성과 사랑으로 지구적 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가치가 모여 집단지성을 형성해야 한다. 개개인이 가진 재능이 마음껏 발아되고 그 재능이 지구적 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이롭게 쓰이도록 하며 그러한 것들이 모여 집단지성을 이루어내야 비로소 인공지능도 훌륭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개발자 몇 명이 인공지능의 윤리관을 통제할 수 없다. 아무쪼록 지금의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편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겪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억누른 물가, 총선 이후 청구서

통계청 홈페이지에 '나의 물가 체험하기'란 항목이 있다. 통계청이 2016년에 개시한 서비스다. 거주지역과 한 달간 구매한 품목을 선택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물가 수준을 전국과 비교할 수 있다. 접속 방법은 간단하다. 통계청 내 '국가통계포털'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물가'라고 입력하면 된다. 그럼 '나의 물가 체험하기'가 연관 검색어로 제일 먼저 뜬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주택·수도·전기·연료 등 대분류 항목 12개가 있다. 이 중에 식료품(중분류, 132개)만 선택해봤다. 식료품 품목 중에는 사과도 포함돼 있다.

'물가 2%대' 위해 정부 전방위 노력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의 식료품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 올랐다. 전국 기준 식료품 물가 상승률(6.0%)보다 높은 수치다. 서울 식료품 중에서 상승 품목은 97개, 하락 품목은 33개다. 변동이 없었던 품목은 2개뿐이다. '금사과'란 별명을 얻은 사과는 무려 80.3%나 급등했다.

서울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세종과 전남이 각각 6.70%, 경남 6.50%, 전북 6.40% 등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강원과 제주로 4.20%로 나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2%대 물가안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총선(4월 10일)이 치러지는 4월에 인하 조치도 종료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마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정부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속도와 강도로 물가를 누를 것인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회견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을 표현한 발언이었다.

지난해 한은 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통화정책 충격이 인플레이션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되새겼다. 보고서에서는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

마감 후

서지희
정치경제부차장

션을 체험하는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가 오르면 사치재는 안사면 그 만이다. 그러나 필수재는 단어 그대로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 사야 한다. 필수재 물가를 접하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체감은 다르다는 것이다.

설 연휴 전 필자는 사과 8개를 2만 원에 구입했다. 매대에 놓인 물건을 모두 팔면 장사를 마치는 과일 가게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과 8개에 2만 원'은 저렴한 가격이었었는데 당시엔 "2만 원이요?"라고 놀라 되물으며 결제했다. 높은 체감물가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물가 2%'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염원하는 통계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1% 올랐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수치다. 미국의 한 독립리서치 회사는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경제에 동조하는 한국의 상황도 비슷할까. 이달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연다. 이날 한은은 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한다. 작년 11월에 한은이 예상한 올해 상반기 물가는 3.0%, 하반기 물가는 2.3%다.

총선 뒤 물가안정 대책 있을지 '걱정'

'물가안정'이란 착시효과를 던졌던 정부의 대책이 하나, 둘 사라진다면 그동안 억눌렀던 물가는 그 제야분석을 드러낼 것이다. 그 시기는 머지않았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시장은 단기 성장을 희생하는 정책을 선호하지 않겠지만, 물가안정 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은 최악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수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물밑듯이 나왔던 물가안정대책이 앞으로 그 속도와 강도를 유지할까. 총선 이후 물가안정을 위한 히든카드가 없다면 경제에 어떤 신호가 나올까. 술한 물음표를 안은 채 '물가 청구서'가 지금 날아 오고 있다.

jhsseo@

금융 취약계층에 맞춤형 교육을

"고소득층이나 기업, 기관 소비자는 고급 정보나 전문지식에 프리미엄 비용을 기꺼이 부담한다. 그러나 정보에 드는 비용을 아끼워하지 말자."

미래학자인 제이슨 쉐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은 그의 저서에서 다가올 금융 위기 대처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더 관심이 가는 건 그다음에 나오는 문장이다. 그는 "일반 소비자들은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채 더 복잡해진 금융 앞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관심을 뒤야 할 이들은 후자, 즉 '고군분투하게 될 소비자'다. 고소득층, 기업, 기관 소비자는 '돈이 되는 이들'이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는다. 금융사의 미래 전략으로 꼽히기까지 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나아가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복지 불평등에 노출되기 쉽다. 고령층, 사회초년생, 저소득자 등은 얼마나 더 고군분투하게 될까.

해결책은 금융교육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e-금융교육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유튜브 '슈가'와 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청년 대상 교육영상과 중장년·노년층 대상 생애주기별 웹툰 제작에도 나섰다.

다만, 이같은 당국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노트북 너머

유하영
금융부차장

어렵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영상 등에만 의존하는 현행 금융교육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정보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대면 교육'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특강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교육이 실행되는 현장도 잘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사감사 대상 연수는 한두 번에 그쳤다"며 "당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면 좋을지 전달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본 권리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금융 취약계층의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고군분투를 최소화할 수 있다. haha@

이투데이, 말투데이

☆ 칼라거펠트 명언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진정한 디자이너다." 현대적 감각의 지적이고 관능적인 여성스러움을 추구한 독일 패션 디자이너다. 정돈된 클래식 스타일에서 약간 벗어나 미래지향적 느낌을 강조한 클래식즘을 표현했다. 샤넬의 책임 디자이너로 활동한 그는 샤넬뿐만 아니라 쉐레, 자신의 브랜드인 라거펠트, 펜디 등 여러 상표의 옷을 디자인했다. 오 늘은 그가 숨진 날. 1933~2019.

☆ 고사성어 / 미생지신(尾生之信)

미생은 사람의 믿음이란 뜻이다. 미련하도록 약속을 굳게 지키거나 고지식해 융통성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魯)나라 미생(尾生)은 사랑하

는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다렸으나 여자가 오지 않자 소나기가 내려 물이 밀려와도 끝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교각을 끌어안고 죽었다. [信如尾生 與女子期於梁下 女子不來 水至不去 抱柱而死.] 사기(史記) 소진열전(蘇秦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 시사상식 / 내재 가치(Intrinsic Value)

회사의 유형형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 가치를 산정했을 때를 가리킨다. 이 가치 산정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주관적인 평가 척도에 해당한다. 옵션 가격 산정에 있어서 옵션이 ITM(in the money) 상태, 즉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상태에 있다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우주 '지정학적 전략' 강화해야

세계 각국의 우주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주공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경쟁으로부터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전략 경쟁에 이어 우주의 상업화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우주상업 당사자들은 초대형 군집위성, 우주궤도 내에서의 서비스 임무(위성의 수리, 정비 및 연료 재공급 등), 상업용 우주정거장, 자원회득을 위한 달 및 행성탐사, 달과 화성의 식민지 개발과 같은 계획을 통해 우주를 점유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국, 중국, 유럽 및 인도 등은 우주탐사의 전략적 핵심지역인 '라그랑주 포인트(Lagrange Point)'를 선점하고자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라그랑주 포인트는 우주공간에서 위성이 지구와 달의 중력에 의해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지점이다. 이는 지정학적 경쟁이 지구 영토를 넘어 우주로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우주 지정학의 영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관측된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위성통신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위성네트워크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사이버 공격은 우주궤도에 있는 위성이 아닌 지구상의 지상시스템에 제한하여 아직 우주궤도는 무기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에 의한 위성파괴시험, 기생위성에 의한 상대 위성의 기능 무력화 등과 같은 우주 무기화는 거의 문턱에 와 있다.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미국, 중국 및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인도, 일본 등도 더욱 성공적인 우주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 우주는 더 혼잡해지고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위성과 우주 쓰레기의 증가로 인해 미래의 우주는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미래에 세계 주요 국가는 경쟁력을 높이고 우주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우주활동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국의 이익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우주활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국가전략연구소 이사장
前 한국항공대 교수



동에 대한 법률과 규범을 제정한다. 둘째, 우주궤도에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우주정거장 건설과 유지 및 달과 행성탐사를 수행한다. 셋째, 우주상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응용 서비스사업에 투자한다. 넷째, 우주대응능력과 사이버공격 도구를 개발하여 적의 군사적 활용에 맞서는 우주능력을 개발한다.

이러한 각국의 우주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첫째, 우주활동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우주교통관리 규칙을 제

정하는 글로벌 협력에 동의해야 한다. 둘째, 우주에서 허용되는 활동에 대해 국가 간 상이한 의견을 갖더라도 우주에서의 군비통제에 대해 합

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많은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는 위성요격무기시험을 자제하는 데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 2021년 11월 러시아는 탄도미사일을 이용하여 수명이 다된 기상위성에 대한 요격을 통해 ASAT(안티위성) 파괴시험을 단행했다. 당시 1500개 이상의 추적이 가능한 우주 파편이 생성되었다. 이는 앞으로 수년 동안 우주정거장, 운용 중인 위성 및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같은 안전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사업을 시작한 지 30년 이상이 흘렀지만 글로벌 우주 지정학적 측면의 우주 전략은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주 지정학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우주 전략은 국방, 안보, 산업, 경제, 외교, 우주탐사 등의 측면에서 미래 국가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탐사·상업화·군사적 활용능력 지향 선진국 '우주공간 선점' 경쟁 치열 미래 국가전략의 축... 적극 대응을

노무, 특!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선마저 깨질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나라다.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들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진다.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근로자,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국가로 볼 때 각종 육아지원제도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지불하는 게 중소기업 사업주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보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휴직 근로자 1명 대체와 중소기업의 1명 대체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중소기업에 1년 대체 인력으로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간신히 채용을 해도 그 사람이 기업의 니즈에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3~6개월이

지나야 그나마 쓸 만한데, 1년이 지나면 겨우 숙련시킨 근로자와 이별하고 다시 비숙련 상태가 되어 돌아오는 복직자를 맞이해야 한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난임휴가는 중소기업에서 그 비는 시간을 대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은 근로자들을 더 두어 짜내거나 그만큼의 매출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런데 '근로자 지원제도'는 대부분 알지만 '사업주 지원제도'는 제대로 된 홍보가 없다. 해당사업 발생 시 근로자에게 안내가 가는 경우는 있어도 사업주에게 안내가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심지어 그동안 사업주들이 가장 만족해하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3년 없어졌다. 사업주에게 계속 퍼져도 모자란 판에 가장 도움이 되던 지원이 사라졌다. 그 대신 육아기 단축 근로 대체자 지원금이 생긴 건데, 중소기업에 단축근로자 대체를 위해 시간제 취업하려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더 퍼주고 더 홍보하고 더 안내해야 한다. 신동현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호소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고 법조문은 애매한 까닭에 동정 여론도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 총선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엔 매년 약 5조 원이 든다고 한다.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나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흐린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한다. 재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그렇다. 유예에 반대하는 귀족노조 심기를 살피는 것이 선거공약상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을 중시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 원전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잃어버린 원전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특별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고준위 방폐물 처리가 어려워 2030년께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해외로 뺏어가는 'K-원전'에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 아닌가. 이념에 치우친 편협한 에너지 정치로 국가를 재난적 상황으로 몰고 가면 엄청난 심판을 피할 길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국민 후생, 편익 증진 차원의 입법 과제도 남김없이 해결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있는지 모른다. 여야의 살바싸움이 법의 허용 기한 이상으로 길어진 탓에 선거구 확정조차 안 된 탓이다.

민생법안 처리, 선거구 확정 등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여야는 이를 등한시하며 표와 지지를 달라고 손을 내민다. 생떼가 따로 없다. 국회 꼴이 이러니 정치 반감과 무관심이 커지는 것이다. 국민 용서를 구하려면 여야 공히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시론

정운택

연세대 겸임교수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코로나19는 사회,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으로 6억902만 명의 확진자와 6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3443만6586명과 3만5812명(2023년 9월 기준)이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지대한 역할 덕분이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시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전담하였다.

감염병 위기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 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구조적, 예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총 231개소이고,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총 6만3551병상으로 전체 병원 대비 비중이 각각 5.4%, 9.7%로 OECD 최하위(2020년 기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부족 및 예산 사용 경직성 측면에서는, 정부 조직 및 공공기관 1년 사용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산장비, 고가 의료 장비 등 물품 구매 시엔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11단계의 공동구매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 병원들은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지급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경상비용 전체를 보상해주지 않아 공익적 적자 발생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의료원들은 5491억 원(2022년 기준)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 의료 안전망의 핵심축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는 운영체계 개선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현행법상 8개 소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지원 효율성과 일관적인 관리체계의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역량강화 위해 의료인 확충 필요해

둘째는 연구역량 강화다. 공공의료기관이 주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감염병, 만성질환 등은 민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야다. 공공의료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치료제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제도 마련이다. 공공의료기관 운영 평가 시 연구역량을 반영하고, 임상시험 수행 시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육성해야 한다.

최근 의대 증원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공공의료기관이 법적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인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인을 양성 및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Galaxy S24 Ultra

Galaxy AI ✨ is here



samsung.com

*일부 AI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